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제987호

돈 잘 버는 기업 기부금은 안낸다

30대기업 올 상반기 기부금 3681억…지난해의 35% 수준

SK하이닉스 2조989억 벌어 6억 지출…기부비율 '0%'대

〈영업이익〉

돈을 잘 버는 기업일수록 기부에 더욱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영업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국내 30대 기업 중 '꼴찌'인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은 올 상반기 24조93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8조4280억원의 52%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올해 들어 내놓은 기부금은 3681억원으로 지난해 1조443억원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30대 기업의 영업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지난해 3%대에서 2%대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전반적인 영업익 감소 추세 속에서도 탄탄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부에 더욱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하면서 3조2151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회사 재무제표상 기부금 계정에 잡혀 있는 금액은 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SK하이닉스는 2조989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기부금은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0%에 가까운 셈이다.

현대글로비스도 계열사의 도움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기부금 내역은 초라하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4229억원과 4044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기부금 계정에는 영업이익의 1%가 되지 않는 20억원과 39억원이 각각 잡혀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글로비스는 6월말 기준 2024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탄탄한 실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기부금은 3억원이 고작이다.

상반기 기부금 상위 기업

기업	영업이익	기부금
삼성전자	11조489억원	1685억원
SK텔레콤	7924억원	265억원
포스코	1조830억원	287억원
현대중공업	영업적자	237억원
KT	영업적자	321억원



상반기 기부금 하위 기업

기업	영업이익	기부금
SK하이닉스	2조989억원	6억원
SKC&C	1055억원	11억원
SK이노베이션	3252억원	6억원
현대글로비스	2024억원	3억원
현대제철	5921억원	17억원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SK C&C도 벌어들인 이익을 고액 배당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기부금은 인색한 수준이다. SK C&C가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5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기부금은 55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짠돌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3252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기부금 계정은 6억원에 머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상반기 3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반기보고서상 기부금 계정을 찾기가 힘들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39억원과 54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잡혀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KT는 대규모 적자 속에서도 매년 일정한 비율의 기부금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87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37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한해 내놓은 기부금 28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KT도 올해 들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지만 321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30대 기업 중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한편 국내 30대 기업 중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놓은 곳은 삼성전자로 16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기술금융 앞장서는 은행 정책금융 인센티브 준다"

'종합상황판' 가동 실적 점검

신제윤 "금융 보신주의 혁파"

내년부터 기술금융 공급이 우수한 은행에 정책금융 공급 차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이 가동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방안과 금융권 보수문화 쇄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주축이 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획 5면

신제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기술금융이 금융 현장에서 실제 자금공급으로 본격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 운용의 틀에 갇혀 있는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모험자본의 육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감독 관행의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에 보수적 금융문화의 쇄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래된 부실을 끄집어내 문제 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 제재에 대한 금융사 직원들의 두려움을 덜겠다"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과 생각을 바꾸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도 이번 주부터 서산 고용복지센터와 벤처기업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 모험자본 육성과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 김대호 인하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혁신위원들이 참석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르면 오늘 사퇴표명

檢, 국민銀 전산센터 압수수색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에 이어 이사회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음에 따라 금명간 사퇴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후 "그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이다. 임 회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KB금융을 향해 조여 오는 압박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간 이견은 있었지만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임 회장이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들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결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업무 복귀를 막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일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임 회장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측근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의 전산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이주열(오른쪽 두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노진환 기자 myfixer@

신종 주가조작 세력 꼼짝마!

금융당국, 알고리즘 매매 등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기법을 동원한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알고리즘 매매와 현·선물 연계 주가 조작 등 신종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trading)는 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가격·거래량·경제지표 등의 매매 조건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대응 가능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주가 조작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 조종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미국계 초단타 매매 전문업체 A사 트레이더가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는 점을 노리고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조종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는 신종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집행위원회에 가입해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 정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관련 엄단 지시로 출범한 조직이다.

조승예 기자 sysy@

영업이익률 1위 내준 현대車 "환율이 미워"

1년만에 도요타에 밀려 2위… 해외 판매단가 하락 '제값받기' 제동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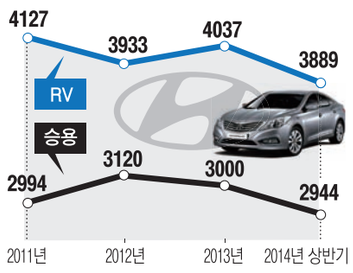
현대자동차가 차 가격을 올리며 해외 시장에서 '제값 받기'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환율하락 탓에 오히려 차량 평균 판매단가(ASP)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도 동반 감소해 자동차 영업이익률 1위 자리도 올 2분기 일본 도요타에 내줬다.

16일 현대차가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승용차 해외 ASP는 올 상반기 294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35만3000원보다 9% 하락했다. 투싼ix, 싼타페,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 등 레저용 차량(RV)의 ASP도 올 상반기 3889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4073만원보다 100만원가량 하락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을 인상하는 제값 받기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제네시스 3.8 모델의 가격은 구형 제네시스보다 7.9% 오른 3만8000달러(약 3947만원)로 책정했다. 6월 출시된 LF 쏘나타도 2.4 SE 모델의 가격을 국내 동일 모델보다 152만원 올린 2만1150달러(약 2197만원)로 결정했다.

현대차 해외 평균판매단가(ASP)

단위: 만원 ※출처: 현대차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하지만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1% 하락하면서 현대차의 제값 받기 전략은 발목이 잡혔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4조25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 하락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1%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이후 유지해 온 글로벌 완성차 회사 '영업이익률 1위' 자리를 올 2분기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내줬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와 쏘나타의 신차 효과를 이어 나감과 동시에 수익 개선·비용 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수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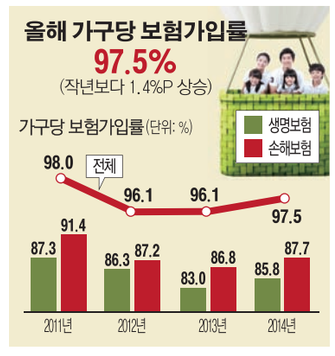
권태성 기자 tskwon@

Graphic NEWS



흡연세금=고가주택 재산세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 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한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



가구당 보험가입 소폭 증가

올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5%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7.5%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85.8%, 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87.7%를 기록했다. 강구귀 기자 kkk@

Market 화요섹션 19~21면

커버스토리
해외기업 국내증시 상장


황창규 회장 ▶2


신동빈 회장 ▶10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권오준 "갑을문화 타파" 상생의 악수

〈포스코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만나 동반성장 논의
성과공유제 도입 10년… 중기지원에 관심 높아
"협력업체에 먼저 다가가 내실 있는 성장 이룰것"



권오준 포스코 회장(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간담회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 대표와 만났다. 협력사와의 '갑을문화' 타파에 앞장서고 공급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권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권 회장은 지난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소기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 회장과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확산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사회적책임(CSR)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권 회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 이른바 공유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대표적 사례가 포스코와 한국클래드텍이 함께 개발한 '발전소 ACC 튜브용 열연 클래드강판'이다. 한국클래드텍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발전소 ACC 튜브용 클래드강판을 국산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클래드텍과 공동 연구에 돌입, 해결책을 찾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클래드텍은 발전소 관련 튜브용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됐고, 포스코는 클래드열연강판의 새로운 판매처를 찾게 됐다.

특히 올해는 포스코가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한 성과공유제가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권 회장의 중기 상생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권 회장은 지난 6월 경북 포항에서 1, 2차 공급사 대표 6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사에 먼저 다가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실 있는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사람의 지혜와 조언을 모아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더 큰 동반성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온 90건의 개선 요청사항 중 25건의 아이디어는 바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성과공유제 도입 10주년을 맞아 권오준 회장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해군 입대 둘째 딸 만난 최태원 회장 "자랑스럽다"

〈SK그룹〉

민정씨, 추석 이후 수감중인 아버지 면회 15분간 인사 나눠
최 회장 올 초 "흔쾌히 승락"… 세상의 지나친 관심 우려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둘째 딸 민정(오른쪽)씨가 어머니 노소영씨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대 생활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해군 장교 입영을 앞둔 둘째 딸 민정씨를 만나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올해 초 민정씨가 면회를 와서 해군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에도 흔쾌히 수락한 최 회장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추석 연휴 이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 최 회장을 홀로 찾아가 입영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민정씨의 면회 시간은 15분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딸의 선택에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했으나, 한편으로는 차녀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지나친 점에 대해서는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치관 측면에서도 공통 부분이 많은 최 회장과 민정씨 부녀는 평소에도 대화를 자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장교의 꿈을 갖고 있던 민정씨는 이미 올해 초 수감 중인 최 회장을 면회 가서 "해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최 회장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씨는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11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입영행사에 참석했다. 민정씨는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외삼촌 노재헌씨 등 가족들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자랑스럽다고 했으며 (입영에) 반대는 안 했다"고 말했다.

민정씨는 이인호관에서 열린 입영행사 마지막 순서에 가족들과 일일이 포옹을 한 뒤 같은 소대 동기들과 단상에 올라 가족에게 큰절을 했다.

민정씨는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해군 함정 승선 장교에 지원했으며 군사훈련과 항해병과 교육을 마치면 오는 12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민정씨는 지난 4월 해군 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하고서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지난 8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 재학 시절 부모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학원 강사, 레스토랑·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을 정도로 자립심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해사에는 민정씨 등 18명의 여성을 포함, 총 118명의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이 입영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황창규 회장이 KT뮤직 칭찬한 까닭

"철저한 고객 서비스 작지만 강한 계열사"



"철저한 고객 최우선 중심 전략이 성공 사례를 탄생시켰다."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T뮤직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늘 "부하직원을 칭찬하고 문제를 공유하는 등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황 회장이 이번에는 '작지만 강한 계열사'를 칭찬하고 나선 것이다.

황 회장은 지난 1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는 결국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며 KT뮤직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를 고객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해 성공한 사례로 꼽았다.

'고음질 무손실' 스트리밍 인기… '멜론' 맹추격
"직원 칭찬하고 문제 공유하는 문화 만들어야"

이어 "KT가 최근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는 결국 '고객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 '지니'와 같은 서비스는 고객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한 '2분기 계열사 1등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승주 KT뮤직 대표의 보고를 들은 후 칭찬, 격려의 말과 함께 계열사들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KT뮤직은 KT의 53개 계열사 가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들어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니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니의 6월 첫째 주 모바일 기준 총 체류시간은 250만 시간으로 1월 첫째 주 대비 3배나 늘었다. 지난 7월 지니의 모바일 순방문자(UV) 수는 지난해 7월 64만명에서 252만명으로 291%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음악업계 1위 멜론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황 회장은 '고객 최우선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KT뮤직은 지난해 6월 지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을 펼쳤다. 우선 고가의 이어폰을 쓰지 않고도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또 연령대별로 음악을 추천해 주는 '몇살이세요' 등 특화된 서비스들도 대량 선보였다. 특히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고음질 무손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시 3주 만에 이용건수 10만건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KT뮤직은 올 상반기 3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처럼 직원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를 칭찬할 수 있는 이유를 끊임없이 궁리하는 황 회장은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다.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 시절 직원들에게 "내 사무실에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고 강조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재용, 朴대통령 직접 안내…삼성 '차기리더' 보폭 넓혀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뿌리' 제일모직 옛터 창조경제 '둥지'로 탈바꿈

삼성·대구시, 센터개발 MOU 체결

대구 북구 옛 제일모직 터가 '대구 창조경제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청와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대구시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발 계획을 포함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옛 제일모직 부지(연면적 4만1930㎡)에 설립되는 대구 창조경제단지에는 창업보육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문화예술창작센터, 소호(SOHO) 오피스 등 19개 동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삼성 창업관을 신축하고 그룹의 시초가 됐던 삼성상회 건물도 복원한다.

제일모직은 1954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대구 침산동에 설립한 공장에서 출발했다. 1995년 제일모직 대구공장이 구미공장과 통합해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MOU 체결로 할아버지 고 이병철 창업주가 사업을 일으킨 땅을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개발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해 총 900억원을 투입,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완공되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 중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에 삼성그룹 창업지라는 상징성을 가진 대구에 창업·벤처와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단지인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됐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해 부지를 시찰했다. 시찰 중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제일모직을 세차례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3장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대구 혁신센터 삼성이 키운다

그룹 대표로 행사 참석
대통령 지근거리 수행
"李회장 공백 메우기 행보"
시진핑 방한 의전 챙기고
애플과 화해 조성하기도

"대구지역 창조경제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든든한 멘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삼성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자 박수로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 출범식 후에는 박 대통령과 함께 대구창조경제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 본사를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곳 제일모직을 세 번 방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이곳 11만3061㎡(약 3만4000평)에 총 90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한다. 창업보육센터, SOHO 사무실, 예술창작센터 등 총 19개동의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삼성은 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복원해 전시하고,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집무실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의 뿌리가 60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동력으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된 셈이다. 그만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삼성그룹에 특별하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구로 내려가 삼성과 대구시의 창조경제단지 조성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박 대통령을 영접한 것은 이러한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이 국내 행사에 삼성그룹을 대표해 참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4개월여 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이건희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구 북구 제일모직 터에 조성될 대구 창조경제단지 부지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인용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차기 리더로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전을 직접 챙겼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국내 경제인 중 유일하게 이틀간의 시 주석 방한 기간 모두 만남을 가졌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지난달 중국 난징(南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만나 올림픽 후원 연장 계약을 했다.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공개 행사를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세기의 특허 대결을 펼치던 애플과의 화해무드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삼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 혁신센터 방문은 대구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혁신센터 내에 새로 문을 연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스마트TV용 앱 개발 업체인 '부싯돌' 직원이 삼성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현장 등을 둘러봤다.

장효진 기자 js62@

朴 "혁신센터, 대구 창조경제 메카로"

정부지원 약속…지역경제 활성화
삼성 "1500억 투자·창의인재 육성"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구를 찾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삼성이 1500억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혁신센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각 지역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혁신센터를 촉매제로 활용해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참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롯데), 경남(두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자동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LG), 충남(한화), 경북(삼성), 강원(네이버) 등 11개 혁신센터를 발족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엔 서울(CJ), 울산(현대중공업), 제주(다음), 세종(SK) 등 4개 혁신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은 건 취임 이후 세 번째이지만, 이번 방문은 혁신센터 계획 발표 후 첫 방문이어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혁신센터는 도전, 성공, 회수, 재도전이라는 창조경제 선순환 구조와 철학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곳 혁신센터를 대구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혁신센터와 삼성, 대구시 3자간 창조경제 구현 협약이, 삼성과 대구지역 기업 간 기술협력계약 및 업무협약이 각각 체결됐다.

삼성은 이 자리에서 혁신센터가 대구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5년간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의인재 육성과 경영멘토링단을 구성해 대구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소재, 패션 메카트로닉스, ICT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저소득층 담배구입 비중 고소득층의 3배

통계청 '2분기 소득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석

100만원 이하 소득층 1.2%… 600만원 이상 소득층 0.38%

담뱃값 인상 서민에 부담… "저소득층 세금 더 거두는 셈"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저소득층 가계소비 중 담배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의 세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이 결국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흡연자에게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소득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총 소비지출 중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3.2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총 소비지출 90만4549원에서 담배구입비는 1만111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1.22%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담배 구입비는 1만4892원으로 액수만 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많지만 전체 소비지출 302만5538원의 0.38%에 불과했다.

2분기 소득별 가구당 담배구입비 비중

소득구간별	소비지출	담배구입비(비중)
100만원 미만	90만4549원	1만1111원(1.22%)
100~200만원	126만5521원	1만5493원(1.22%)
200~300만원	177만5284원	1만5867원(0.89%)
300~400만원	224만7219원	1만8634원(0.82%)
400~500만원	252만9676원	1만4946원(0.59%)
500~600만원	302만5538원	1만4393원(0.47%)
600만원이상	382만472원	1만4892원(0.38%)
전체 평균	**227만385원**	**1만5659원(0.68%)**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는 총 소비의 1.22%,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는 0.89%,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는 0.82%, 400만~500만원 미만 가구는 0.47%를 담배 구입에 썼다.

2분기 전체 가구당 평균 담배구입비가 1만5659원으로 전체 소비에서 0.68%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중·하위 소득층에 해당하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의 담뱃값 비중이 모두 평균치를 넘은 셈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담배구입비뿐만 아니라 흡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5%의 흡연율은 53.9%이지만 소득 상위 25%의 흡연율은 44.1%에 불과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고 담배 가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같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담배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담뱃세가 서민을 통해 거두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산얼병원·외촉법… 정부 설익은 '외투 유치' 된서리

영리병원 후보 산얼병원 불허

'2조3000억 효과' 외촉법 0건

성과 위주 무리한 추진 혼선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이 연이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성과 위주의 무리한 추진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산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측 사업자인 CSC가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에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산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제주도에 신청한 지 1년 반 만이다.

CSC의 모기업인 톈진화업그룹의 대표가 구속 중이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데다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이 복지부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CSC 모기업 대표의 비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련 안건을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올려 실적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정책혼선 속에 성과 '제로'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조원대의 투자 전망을 자신하며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촉법 통과 후 8개월, 발효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2조3000억원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외촉법 공포 이후 신규 합작 투자 또한 아직까지 전무하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무리한 성과 위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의 고삐를 죄면서 빚어낸 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전세금+자영업자 빚 포함 '진짜 가계부채'는 1881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발표

가계신용 국제기준 맞춰 추산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빚은 최소 188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 가계가 지고 있는 전체 빚을 추산해 발표했다.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1225조원(2014년 3월 기준)에 전세보증금 450조원(2013년 6월), 자영업자의 기업부채 206조원(2013년 3월)을 합산, 가계의 '진짜빚'을 총 1881조원으로 집계했다.

일반적으로 가계빚이라고 할 때는 한은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신용이 통용되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로 지난 2분기 말 기준 1040조원이다.

그러나 가계신용은 국내에서만 작성되는 방식이다. 또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가 포함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등도 빠졌다.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가 가계신용보다 더 높은 이유는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포함된 것 외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금순환표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 계약방식인 전세제도로 생겨난 전세보증금도 앞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인 만큼 가계빚에 합산했다.

또 자영업자의 대출액 중 기업대출로 포함된 206조원도 실질적으로는 가계의 빚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가계빚에 넣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영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빚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며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가계빚은 알려진 1000조원가량을 훌쩍 넘어 200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은이 한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가계빚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mint@

국회 찾은 이주열 총재 "경제 대단히 어렵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내외 금리차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는 '한은 총재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정책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과제'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한은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특히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성장, 고용 등 다중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가계 등 경제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0년 31%에서 2013년 54%로 확대돼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율도 2000~2007년 84%에서 2009~2013년 101%로 늘었다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영성과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한 것은 물론 비우량 기업의 대출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다고도 말했다. 지니계수가 1997년 0.26에서 2013년 0.31로,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8.7%에서 14.5%로 상승하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외 금리차와 원화 약세 또는 강세 기대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선 "유로화·엔화의 약세 요인"이라며 "원·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위기감을 높인 경제진단과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가능성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소득세 'GDP 대비 4%' OECD 국가중 최하위

법인세 비중은 4%로 4위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최근 담뱃세, 주민세 등의 인상안에 따른 반발과 함께 소득세 인상 필요성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되고 있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수치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작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7%)와 체코(3.8%) 등 동유럽 일부 국가뿐이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24.2%에 달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14.2%, 핀란드 13.0%, 벨기에 12.6%, 스웨덴 12.5%, 뉴질랜드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9.0% 수준이고 일본은 5.4%로 낮은 편에 속했다.

특히 소득세 비중 부분에서 한국이 보인 특징은 수십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상여력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992년 3.3%에서 2002년 3.0%로 낮아졌고 이후 3~4%대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이 같은 통계치는 최근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줄줄이 올리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우회증세'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본격적 증세 논의가 이뤄질 때 소득세가 우선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편 소득세와 함께 '정공법 증세 방안'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인상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투자가 절실한 내수상황, 글로벌 경쟁구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10.4%),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규제개혁 어떻게…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규제개혁특별법 주요내용과 분야별 브랜드 규제 발굴 현황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간접세 중심 증세… 여야 공방 가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세가 간접세에 집중돼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을 놓고 다양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간접세를 올리고 나서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는 주로 간접세에 몰려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때문에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입법조사 회답 보고서 분석 결과, 주민세 증세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 등을 협의한다.

국회에서도 이날 담뱃값 인상을 두고 잇따라 토론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과 오전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주제로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윤영석·강기윤 의원이 공동으로 '담배 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 측은 합리적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대 측에서는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될 것이라고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도산한 영세업체 근로자 체당금 받기 쉬워진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10명 미만 사업장 추가

앞으로 도산한 영세업체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상이 빨라진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당금 지급 기준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월급을 3개월간 못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충족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체당금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당금은 정부가 도산한 기업의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해저 송유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창조경제 '命運' 달린 기술금융…숨은 규제까지 걷어낸다

기술금융의 성공조건
-금융권 보신문화 바꾸자

① 기술금융 왜 필요한가
② 中企·벤처 지원 나선 정부
③ 은행권 부실책임 가중 부담
④ 녹색금융 전철 밟지 말아야
⑤ 전문가 대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판교와 대구, 전주, 천안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금융은 금융이 절체절명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금융인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이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7만3000㎞ 뛰며 '독한 신제윤'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술금융 발언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 확대경제관계장관 회의
"금융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금융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8월 22일 부산지역 중소기업인 오찬
"사고만 안나면 된다는 보신주의를 극복하고 창조적 기술금융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8월 25일 수석비서관회의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수있도록 하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발언



8월 7일 '기술기업 현장간담회'
"자발적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기존과 다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8월 27일 28일 현장 방문
"기술금융은 금융이 절체절명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다"

지난해 금융권 총자산 및 기술금융 현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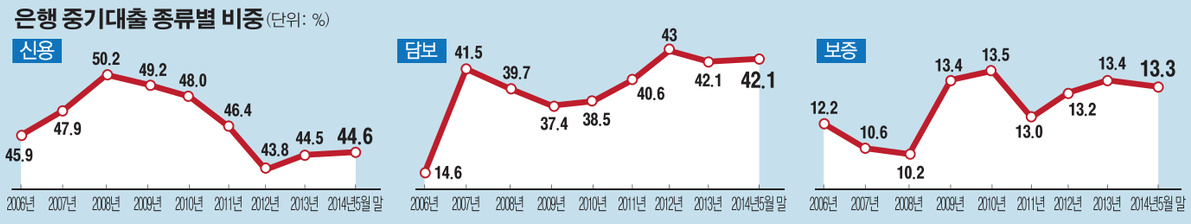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 감독당국의 금융사 직원 제재 대폭 축소
- 금융사 내 인사상 불이익 근절
- 은행 혁신제도 도입
- 실적 좋은 은행에 혜택 부여
- 은행 기술금융 할당 도입

기술금융 현장 확산
- 은행권 기술 신용대출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
-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모험자본 시장 육성
- 성장사다리펀드 역할 강화
- 창업투자자금확대
- 성장 회수지원 활성화

은행 중기대출 종류별 비중 (단위: %)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금융시장 수장인 신제윤 위원장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기술금융'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 기술금융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기술금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담보 위주의 낡은 영업 관행을 탈피하고 유망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정부의 내면에는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속내가 담겨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금융** = 박근혜 정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기술금융에 대해 은행권을 압박하는 이유는 정부의 어젠다(Agenda)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절대적 '큰손'인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을 탈피해야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인하로 풀어놓은 시중자금이 기술금융으로 중소기업에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7배인 2101조3600억원, 금융권 총자산의 61.5%를 차지한다. 반면 지난해 은행과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털 등에서 취급한 기술금융은 총 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자산 대비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기술금융 잔액 중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대출은 18조9000억원으로 총 기술금융 취급액의 72.8%를 차지했다. 대부분 기보를 통한 지원으로 은행권에서는 지원이 극히 일부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은행권이 기술금융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한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인체계 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은 초기 기술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렵다"며 "특히 은행은 중기 담보대출과 신기보 보증부대출로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깨뜨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원활한 연료 공급이 필요한데, 연료 공급 장치인 금융업에 '돈맥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에 만연된 보신적인 타성과 소극적 관행에 원인이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보 기술평가 통한 대출 73% 차지
은행권 지원은 극히 일부분에 그쳐
담보·보증 위주 낡은 영업관행 탈피
中企·벤처투자 확대로 내수 활성화

실적우수 은행엔 파격 인센티브
기관제재 강화·고강도 혁신 추진

◇**숨은 규제 폐지, 금융사 유인책 제시** =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숨은 규제'도 완화했다. 기술력을 갖춘 고등학생도 최대 3억원까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연령을 낮추고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도 폐지했다.

또한 정부는 기술금융 취급을 기피하는 은행권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보다 9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직원 제재를 폐지하는 등 면책을 보장키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당국은 직원 제재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책임을 묻는 등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오히려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기술금융을 할당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 검토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여신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까지 걷어낸 정부는 올 하반기에 7500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정보로 4조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도입 초기 은행에 이를 할당하는 방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기술금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이형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은행 기술평가 대출능력 키워 정착될 때까지 실적점검 지속"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자금도 확대



이형주〈사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 과장은 은행의 기술금융이 자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평가하고, 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이 과장은 기자를 만나 "은행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실적 점검에 나설 것이다. 정착될 때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는 기술금융의 인프라를 만드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기술금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3년 내 정착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현재, 지난 8월 22일 기준 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한 대출은 1117건으로 8500억원 규모이다. 이 과장은 "기존에 은행이 익숙지 않았던 모바일 앱, IT 등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되는 것이 창조경제"라며 "앞으로 3년간 7만개의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한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가 높은 창업 중심으로 창업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제공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서비스의 집중 기관을 연말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건수도 1000만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우수은행에 대해 기술신용 대출시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과장은 "묻지마식 대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같이 보면 부도 위험은 더 줄어든다"며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이차보전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 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세컨더리펀드, 지식재산회수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을 인수해주는 지식재산회수펀드를 통해 기업이 망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보조금 분리공시 갈등… 반쪽 단통법?

장려금·지원금 따로 공시… 제조사 "공개못해" 강력 반발
보조금 상한 등 주요 사안 올스톱… 미래부·방통위 진땀



차별적 보조금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2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이자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이견 조율을 못하고 있어 단통법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하기로 한 단통법 세부 고시안에 대한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공시 및 분리요금제 시행 등이 핵심 내용인 단통법 고시는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시행 여부를 놓고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 제도가 시행조차 못해보고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합산된 보조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해 공시하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분리 공시될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단말기 또는 구형 단말기를 가지고도 이통사 보조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놓고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통3사, 제조사 팬택은 소비자 이익 증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찬성,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던 LG전자도 최근 들어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분리공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게다가 분리공시제와 함께 단통법 핵심 사안인 보조금 상한선도 미정이다. 단통법 고시에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 미확정으로 관련 작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단통법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고시안 결정이 더 늦어지면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유미·김범근 기자 jscs508@

가수 '보아' 잊을만 하니 또…



권씨 부녀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변경
2005년때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논란

가수 보아가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5년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고발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지난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매입했다.

이후 보아의 아버지 권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는 한편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를 접수받은 후 현장 조사를 통해 4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달 7일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 부녀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적용돼 적었지만, 201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시는 권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안 돌아오는 5만원권

시중 화폐 70조 돌파
올들어 환수율 22.7% 불과해

한국은행 금고에서 빠져나온 5만원권 중 상당물량이 종적을 감추면서 시중 유통 화폐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기념화폐 제외)은 70조49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3천298억원(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9조8933어원(26.1%)이나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1만원권의 유통 잔액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1202억원(6.7%), 5000원권은 1451억원(12.9%), 1000원권은 982억원(7.3%) 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5만원권은 증가액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눈에 띄게 높은 편이다. 이는 5만원권이 시중에 배포된 후 돌아오지 않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해 1~8월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로, 작년 동기(54.0%)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약 23장이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1만원권의 환수율은 100%를 넘고 5000원권은 74.2%, 1000원권은 80.3%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액권 중심의 화폐 수요 증가는 주요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도 지하경제는 분석이 어려운 만큼 과학적인 원인만 본 평가라는 전제를 달아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5만원권 증가의 배경에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수요가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만원권의 연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임영록 회장 전산교체 직접 개입 정황"

〈KB금융지주〉

김기식 의원, 관여 임직원 고발장 공개…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주 전산기 교체 계획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재열 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3명에 대한 국민은행의 고발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이들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임 회장은 김 전무로부터 김상성 전 은행 IT본부장이 주 전산기 교체의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작년 9월부터 이건호 당시 행장을 수차례 만나 인사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임 회장은 '김 본부장이 IT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고 금품수수 소문이 있다', 'IBM과 유착돼 유닉스 전환에 소극적이란 말이 있다' 등의 얘기를 전하며 김 본부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임 회장이 김 본부장 후임으로 조 본부장을 직접 추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부장은 유닉스 전환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회장이 직접 언급하신 사항', '회장이 실시간으로 지시한다. 아직도 딴생각들 하고 있느냐'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주전산기 교체 관련 중징계자 모두 임영록 회장의 측근들"이라며 "임 회장이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시에 따르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성능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처음부터 모피아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된 만큼 개인이 살자고 국내 1위 금융회사를 혼란과 경영 공백상태로 빠트리며 조직의 건전경영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전산 교체 프로젝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강조했으며 계열사에 부당한 인사개입도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전양자, 아니라더니… 15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에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전양자(72·본명 김경숙·탤런트)가 첫 재판(횡령 및 배임 혐의)을 마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 오른쪽). 지난 5월 10일 화려한 모습으로 출두했던 것(왼쪽)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로비' 김동훈, 29억 세금소송 승소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김동훈(66)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29억원 상당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씨가 "로비 자금을 착복했다고 보고 이를 소득으로 상정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29억7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1~2002년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당국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09년 9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변 전 국장은 무죄로 판결됐다.

변 전 국장 등은 김씨가 로비자금을 착복한 뒤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했다. 조세 당국도 김씨가 현대차로부터 건네 받은 로비자금 등에 대해 29억7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해당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는 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현대차에서 지급받은 돈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출근 지옥된 지하철 9호선 16일 오전 5시52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개화역과 신논현역 양방향의 전동차 운행이 신호기기 이상으로 8분간 중단됐다. 이에따라 전동차 운행이 수동모드로 전환돼 지연 운행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연 운행되고 있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파손 세탁기' 獨서 공수… 증거물 제출

LG 임직원 CCTV 영상은 공개 않기로… 檢 수사 착수

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논란'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에 전시돼 있던 세탁기를 국내에 공수해오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5일 "슈티글리츠 매장 1층 전략제품 전시실에 있던 제품은 독일 현지법인의 자산"이라며 "도어 연결부(힌지)가 파손된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를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파손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다.

공수되는 제품은 슈티글리츠 매장에 있던 3대 중 한 대다. 같은 베를린 시내 자툰 유로파센터에 진열된 세탁기 4대도 힌지 부분이 파손됐으나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LG전자 임직원들이 매장 측과 변상에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확보한 CCTV와 파손된 세탁기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양측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통상적인 제품 테스트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14 기간 중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LG전자 조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직원 등을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이천시육아지원센터, 가정보육교사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보육교사를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35개월 이내의 영아를 가정에서 1:1 보육하는 것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나 출산 및 양육경험이 필요하다.

근무예정지는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센터 측은 교사의 활동지원금,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교사 상해보험 및 배상보험이 지원되며 전문적인 가정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 031-634-9843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요강

모집직종	가정보육교사
직무내용	35개월 이내 영아 1:1 보육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차량소지자

현대증권,
단 한 장의 카드로 세상 카드를 압도하다!



able Card

카드생활의 Remake Asset

카드생활에서부터 자산관리가 시작됩니다



할인 서비스 4가지 중 내가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 선택1)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 캐쉬백 16배 적립(80원/L)
- 선택2) 대형할인점 15% 할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 선택3) 백화점 15% 할인(현대,신세계,갤러리아,롯데)
- 선택4) 전국택시/KTX 15% 할인

※연 4회 변경 가능, 선택 1~4)별 월간할인한도 이외에 전월 사용 실적에 따른 할인 한도 차등 적용
※15% 할인의 경우 횟수(일/월) 및 최대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OK캐쉬백 포인트와 함께 재 탄생한 able point!

- 현대증권 포인트와 OK캐쉬백 포인트가 합산되어 사용 및 적립되는 포인트제도
- OK캐쉬백 포인트를 CMA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현금상환서비스
- able point는 전국 45,000여 개의 OK캐쉬백 가맹점, able 포인트몰, 현대증권 업무수수료로 결제 가능

금융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출금,이체,송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당사 및 타사 이체 수수료 무료
- 당사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지점 창구 송금 수수료 무료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시 적용

특별 서비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의 혜택을 입히다!

- 전국 50여개의 able 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40%까지 현장 할인

(서비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며, 사업장 별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카드문의 : 1588-6611 홈페이지 : www.hdable.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4455호(2014년 2월 6일~2015년 1월 23일)※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현대증권

‘고품질·안전식품’ 만들어 4억 중국인 식탁에 올리자

〈2020년 수입 수산물 소비 주도층〉



1.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 공략
2. 수출다변화·양식어업 육성
3.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중, 한·호주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농식품 공장에서 세계적인 소비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시장 수출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생산 미흡
對 중국 수출 최근 3년새 내리막길
신흥 중·상층 한국산 식품 관심 높아
김·굴·전복·넙치 등 수출 선도 육성
현지 생산 공장·냉장 물류시설 확대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 최근 3년간 내리막…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절실 =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3년 1270달러에서 지난해 6747달러로 431.3% 증가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국제 컨설팅업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가구 중에서 수입농수산식품 소비 주도층인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1%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8%까지 올라갔으며 오는 2020년에는 57%(약 4억 5000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전반적인 소득증대와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안전한 간편식 가공품 위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가공원료보다 소비재 중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 고품질·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농수산식품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중국의 신흥 중산층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구조와 환경은 이 같은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2011년 4억6481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3억 7220만달러, 작년 3억704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말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줄어든 1억740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제품 생산이 미흡해 현지 소비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대부분 수출 제품이 신선, 냉장, 냉동, 1차 단순 가공품(피렛트) 형태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제품 비중이 작은데다, 김, 참치, 해삼, 굴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경쟁력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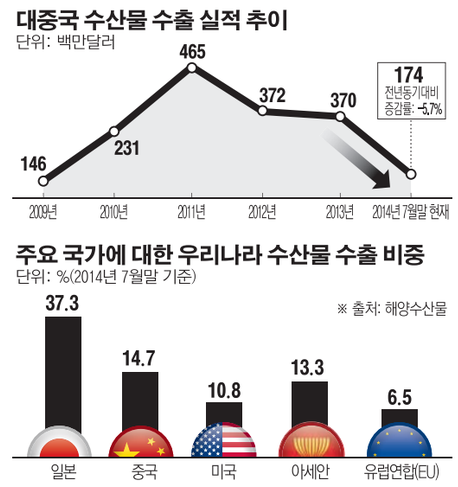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중국 ‘K-FOOD 페어 2014’를 열고 중국 수산물시장 선점을 위한 B2B, B2C 통합 마케팅, 홍보를 진행했다. 사진은 13일 우한 중심가인 광구(光谷)광장에서 열린 한국 식품 체험 행사장에서 우한 시민들이 한국 수산가공식품을 체험하는 모습. 연합뉴스

◇가공식품 중심 수출 첨병화… 수출 선도조직 육성 =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4.7%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특히 연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전망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중국 수산물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FTA 체결 등에 따라 중국은 자국 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 더뎌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애로가 적잖을 것이란 우려다. 예컨대 상품 안전성, 라벨표기 오기 등을 이유로 통관·검역이 지연되거나 반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농수산식품수출 확대방안’을 내놓으며 최근 검역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첨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지화된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가공시설 규모화 및 가공공정 기계화, 해외 냉장 물류시설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김·굴·전복에 넙치를 추가해 총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수출·해외 마케팅까지 일관하는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어업인과 수협 등 민·관 합동 수출개척단을 중국 상하이(上海), 산둥(山東)성 등에 주기적으로 파견해 수출시장 동향 조사, 빅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등의 활동도 펼친다.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업체에 저리(2~4%) 융자를 지원하고 환변동에 취약한 중소 수출업체에는 수산물 환변동 보험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량 수출 가능한 해상운송용 활어패류 특수 컨테이너 5대의 제작을 지원하고 중국 칭다오(青島)에 초저온(-60℃) 수산물 전용 냉동창고시설을 세워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수협·aT, 中 수산업 시장 공략 활로 찾는다

수협, 상하이 무역사무소 개소
aT, 우한에 ‘앵커숍’ 설치·운영

정부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수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중국 수산업 현지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협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말 중국 최대 수산물 소비지인 상하이(上海)에 무역사무소를 개설,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판촉 활동에 힘쓰고 있다. 상하이 무역사무소는 중국 현지 시장조사와 수출전략 수립, 신규품목과 거래선 확보, 품목발굴 등 수출입 업무는 물론 한국 수산물 홍보, 판촉 행사 개최, 현지 수산단체와 정보 교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 증가로 수산업계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중국 현지시장 공략을 통해 선제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조치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말 수산경제연구원의 조사단을 파견해 상하이 현지에서 수산시장 현황과 수산물 소비 형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수협 산하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편이지만 한국산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대로 홍보한다면 고급어종 등 고품질 수산물 판매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중·일 양국의 외교관계 경색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줄어든 것도 한국산 수산물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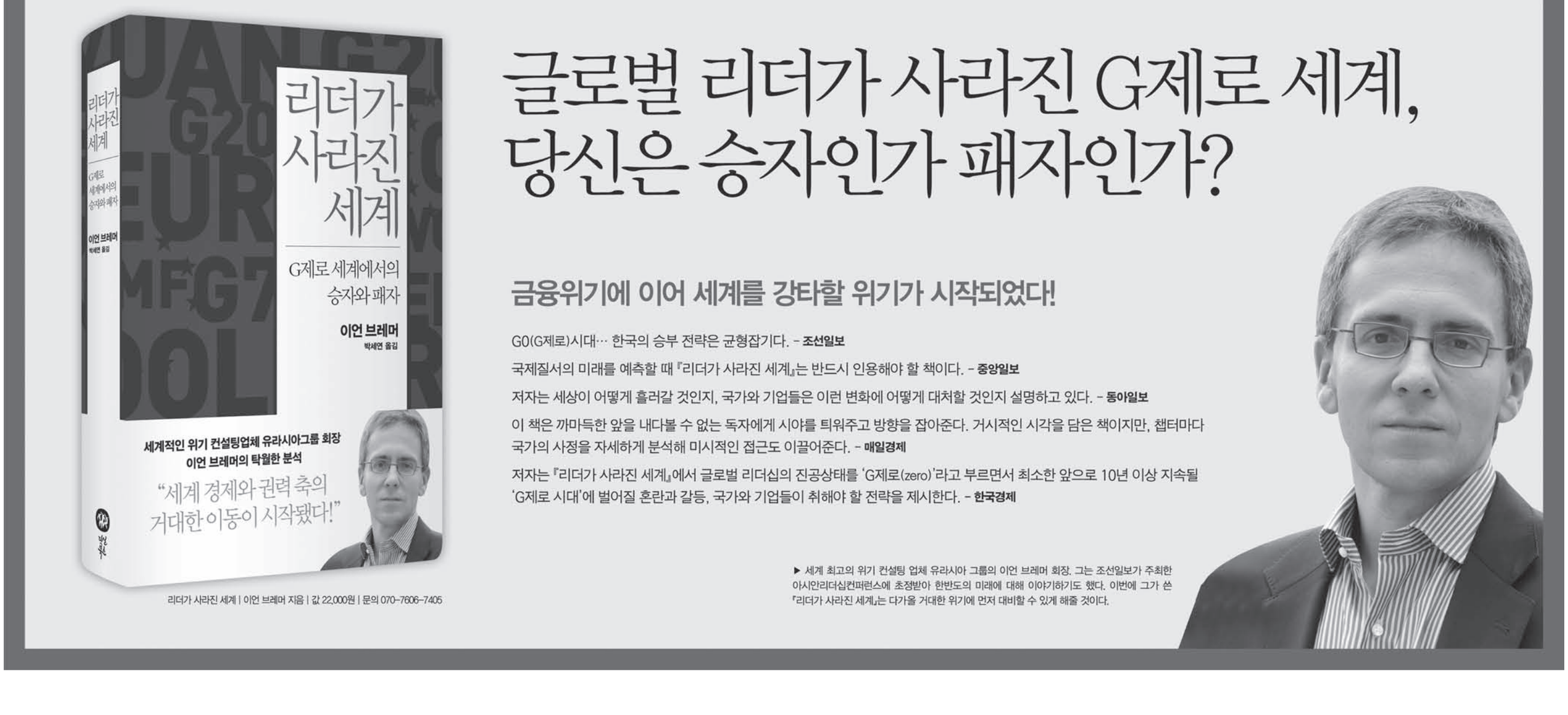
정부는 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aT를 통해 중국 우한(武漢)에 수산식품 앵커숍(Anchor Shop)을 설치·운영 중이다. 수산식품 앵커숍은 우리 수산식품의 시장개척과 수출가능 품목 개발을 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조사, 마켓테스트, 홍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 무역사무소(현지 사무소 명칭·한국수협중앙회상해대표처)를 열고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사진은 개소식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특히 FTA 시대를 맞아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신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테스트 마켓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T는 중국 중서부 내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사 설립, 안테나 숍 개설 등을 늘려나가는 한편 중국인들에게 호응도가 큰 대표 농식품을 육성하고 수출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간편결제’ 대기업 중심 재편 조짐

카드정보 저장 PG사도 가능해졌지만 기준 엄격… 자본 있는 대형사만 가능

카드 간편결제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이다.

1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확산을 위해 이달 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도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드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신협회가 세운 보안·재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한번 등록해 두면 매번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여신협회는 지난달 부터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격 PG사 기준을 협의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이 자격 기준이 엄격해 대형 PG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부터 엄격하게 정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자본력을 가진 PG사가 아니면 간편결제를 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간편결제 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간편결제는 이베이나 아마존 등 해외 유명 오픈마켓에서 이미 보편화한 서비스다. 국내 PG사들은 오픈마켓에 자체 PG 시스템을 갖춘 이들 해외 기업이 한국법인을 출범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네이버가 PG업계 3위인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하며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PG사들의 경쟁이 혼전양상을 띨 전망이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도 지난 5일부터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비씨카드와 현대, 롯데카드가 참여를 결정했다.

PG업계는 현재 KG이니시스와 LG유플러스가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간편결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PG사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가맹점 보유 개수가 중요하다. 이니시스나 LG유플러스 등 대형 PG 사업자들은 가맹점을 10만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플랫폼은 가맹점 수가 8000개 정도에 그쳐 차이가 있다.

한 PG사 관계자는 “안전성이나 재무요건을 갖춘 PG사들만 고객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락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PG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한 네이버나 글로벌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NH농협은행 마케팅코치 김주하 은행장과 간담회

NH농협은행은 16일 마케팅코치(Marketing Coach)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MC들이 평소 느끼는 영업점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미래 농협 마케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주하 행장은 “MC들의 의견을 농협은행 발전과 마케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동산담보대출은 ‘개점휴업’

금융당국 지시에 무리하게 상품만 출시 가치평가·사업기반 없어… 1년간 실적 전무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험사에 동산담보대출을 실시하도록 유도했지만 대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보가치 평가 등 사업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지시로 무리하게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농협생명, 삼성화재 등은 상품 출시 이후 지난 1년 동안 대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 특히 동부화재는 동산담보대출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LIG손해보험은 지난해 상품 출시를 위한 내부규정과 프로세스를 만들었지만 상품 출시를 중단했다.

그나마 보험사들 가운데서는 동양생명만 꾸준히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동양생명이 1~5월 동안 2060억원의 동산담보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동양생명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상관없이 2007년부터 육류 중심의 동산담보대출 판매에 주력해 오고 있다.

보험사 동산담보대출 현황

삼성생명	0건
삼성화재	0건
NH농협생명	0건
한화생명	0건
동부화재	사업중단
LIG손해보험	상품 미출시
동양생명	5월까지 2060억원

※ 자료 : 금감원

이처럼 보험권에 동산담보대출이 자리를 잡지 못한 까닭은 금융당국의 성급한 제도 실시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험사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무리하게 강요해 보험사들이 유형 및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동산담보의 가치평가와 담보물 관리 시스템, 노하우 등 사업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라고 지시했다”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고객들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과정 부실 정밀조사

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진단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실태를 정밀 진단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으로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검사 인력을 보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난해 우리금융으로 부터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획중이며 정확한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엔 경남은행의 한 지점에 근무했던 직원이 회삿돈 16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직원 역시 민영화가 진행된 지난해 5월부터 1년여에 걸쳐 조금씩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에 이들 은행이 외형 확대를 위해 여신취급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없는지, 은행 직원들이 자체 내규나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기능이나 이사회, 감사 등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ijak@

6%대 고금리

은행 ‘코코본드’ 발행 러시

〈조건부자본증권〉

BIS비율 끌어올리는 데 효과 JB금융 22일 국내 첫 발행 부산銀 이달 중 1000억 계획 기업銀 올해 말 도입 준비 중

은행별 코코본드 발행 계획

금융사	내용	발행일
JB금융	2000억원 규모의 지분증권. 금리 6.40%, 30년 만기	9월 22일
부산은행	1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후순위채. 10년 만기	9월말 발행 예정
기업은행	3000~5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후순위채.	연내 발행 예정

※ 자료 : 각 은행

은행들이 잇달아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코코본드는 초저금리 시대에 연 6%가 넘는 고수익을 제공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종 증권이다. 특히 코코본드 발행으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대출을 해주기 전 자본을 확충하려는 은행들이 앞다퉈 코코본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오는 22일 2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한다. 코코본드 발행 금리는 6.40%이며 만기는 30년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4월 미국에서 10년 만기로 10억 달러의 코코본드를 발행한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JB금융이 첫 시도다.

부산은행은 이달 말께 1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산은행은 JB금융과 채권 종류가 다르다. JB금융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지분증권으로 회계에 주식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은행의 코코본드는 상각형 후순위채로 채무증권으로 분류돼 위험도가 낮다.

JB금융의 코코본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때 채권의 상각과 배당, 이자 지급에 제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부산은행의 경우 이자지급 제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최근 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을 마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에는 3000~5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초 코코본드 발행 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면서 대출 전 자본확충 차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다음 달 중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앞다퉈 코코본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다.

코코본드

주로 은행이 발행하는 고수익·고위험의 코코본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신종 증권으로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 업체가 위기를 맞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주식으로 바뀌거나 상각(소멸)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평균 3.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코본드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시장이 코코본드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은행과 시장이 리스크 레벨, 금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삼성전기 '고강도 구조조정' 나선다

'실적쇼크' 11년 만에 경영진단… 다음주 결과 발표
스마트폰 사업 의존도 낮추고 독자생존 활로 모색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선례… 수위 낮지 않을 것"

삼성전기 경영진단 결과 및 후속 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 최근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11년 만에 받은 경영진단에서 어떤 '처방전'을 받게 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16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의 주도로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한 경영진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다음 주 중 경영진단에 따른 업무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기 경영진단은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현재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PCB 기판, 카메라 모듈 등 스마트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나아가 실적 수치적으로도 회복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삼성전기의 올해 1, 2분기 실적 모두 전년 동기보다 악화됐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212억원)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90.5%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3분기에도 삼성전기의 실적둔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핵심 수익처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 부진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증권 조진호·정용제 애널리스트는 삼성전기가 부품 수익성 악화, 고정비 부담 증가 영향으로 4분기 10억원의 영업적자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기판, 카메라, MLCC 가동률은 모두 60% 내외를 기록, 전년 동기(80~90%) 대비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경영진단 후 합병 절차를 거친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사례와 같은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와 올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각각 석 달 동안 경영진단을 실시한 뒤, 합병이라는 고강도 계열사 재편을 실시했다. 합병 절차는 다음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12월 1일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삼성이 그룹 내 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삼성전기(경영진단 후) 조정안 수위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삼성전자 미러리스 카메라 'NX1'

삼성 미러리스 'NX1'
프리미엄 카메라 공략

5세대 이미지 프로세서 탑재

삼성전자가 최고 사양의 렌즈 교환형 미러리스 카메라 'NX1'으로 고품격 프리미엄 카메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미러리스와 DSLR 카메라를 넘어서는 뛰어난 성능을 갖춘 삼성 NX1을 통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NX1은 전문가도 사용하기 부족함이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스피드와 정확성을 겸비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이미지 프로세서인 'DRIMe V'를 탑재했고 0.055초 속도의 초고속 오토 포커스(AF)를 제공한다. 특히 상면 위상차센서를 통해 이미지센서 대부분의 영역을 초점으로 인식할 수 있어 움직이는 피사체의 순간도 정확하고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8000분의 1초의 초고속 셔터 스피드, 업계 최고 수준인 초당 15장의 연사 속도를 지원해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경기나 동물 촬영 등 전문가용 카메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야구 경기의 타격 순간 같은 고속 장면을 인식해 최적의 순간을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삼성 오토 샷' 모드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

NX1는 이미지 센서와 동영상 촬영 기능도 강화했다. 2820만 고화소에 BSI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APS-C 타입 CMOS 센서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으며 4K와 UHD(초고해상도) 화질의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도 지원한다. 김지영 기자 gutjy@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LG유플러스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글학회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쪽글이란 한글학회가 정한 문자메시지의 순우리말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어, 속어 등 아름다운 우리말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신동빈 롯데 회장 '와인명가' 도전장

"국빈 만찬에 어울리는 국산 명품 와인 빚어라"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맥주에 이어 프리미엄 와인 시장에 도전한다.

16일 롯데그룹 및 롯데주류에 따르면, 최근 신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국산 포도로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와인에 대한 신 회장의 애정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을 때 드러났다.

그는 베이징시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만찬에서 나온 와인을 마시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신 회장은 이 와인이 중국 토종 기업인 장위(張裕)의 와인임을 확인하고, 우리도 국산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야 겠다고 다짐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 롯데주류와 롯데아사히주류를 통해 와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계열사 롯데아사히주류는 호주 와인 브랜드 '옐로우 테일'을 수입해 판매 중이다. 롯데주류는 지난 2009년 두산 주류사업을 인수하면서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와인 '미주앙' 제조설비도 함께 넘겨받았다. 미주앙은 1997년 출시 후 줄곧 한국 천주교의 미사주로 사용돼왔다.

미주앙 화이트와인은 경북 의성군에서 계약 재배한 양조용 포도를 사용하고, 레드와인은 영천의 식용포도 만든다. 그러나 레드와인의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가 와인 명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 토양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한 양조용 포도 품종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신 회장은 와인 명가 육성을 위해 기술제휴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국산 포도로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보자는 특별 주문이 있었다"며 "프랑스 보르도 지역과의 적극적인 기술 제휴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현대重, 김외현 단독대표 체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김외현 사장으로 변경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재성 대표이사 회장의 사임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재성, 김외현 각자 대표이사에서 김외현 단독 대표이사로 바뀌었다고 15일 밝혔다. 김 사장은 차기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현대중공업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사장단 일부 인사를 단행하고, 그룹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에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현대중공업은 현업에 복귀한 최길선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총괄회장과 권 사장의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최길선 회장, 권오갑 사장의 임명에 이어 이재성 회장이 물러나면서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대폭적인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몰 수원 "내달 24일 개점 목표"

수원시에 지역협력서 제출… 지역상인 반발 여전

당초 추석 전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전통시장 상인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롯데몰 수원이 다음달 개점을 목표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롯데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를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점 목표일은 다음달 24일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 상인들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상인들은 롯데몰이 개장하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김한중 수원전통시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시는 교통문제 등으로 과선교 준공 이전엔 롯데몰 등록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아직 과선교는 준공되지 않았다"며 "상생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등록 허가를) 신청하는 롯데, 신청을 받아주는 수원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 측은 운영사 롯데수원역쇼핑타운을 통해 상인들에게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상인복지 등 3개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17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2개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40억원, 내년에 30억원 등 70억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롯데가 내놓은 상생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보상금 500억원 지급과 실질적인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다람 기자 zing@

'카카오 버스' 나온다

다음, '서울버스'앱 운영 서울버스모바일 인수
내달 다음카카오 출범 앞두고 로컬사업 강화

오는 10월 다음카카오 출범을 앞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로컬 사업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며 외형확장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수도권 버스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앱을 운영하는 서울버스모바일을 인수했다.

서울버스모바일측도 공지를 통해 "서울버스앱 서비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4년 10월 1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영업 양도할 예정이며,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정보는 다음에 이전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동안 '다음 지도'앱에 위젯 형태로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별도의 버스앱을 구축하진 않았다. 다음이 이번 인수를 통해 서울버스앱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용도로 확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다음은 로컬비지니스를 가장 강력한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해왔다. 합병을 선언한 후 다음과 카카오 양사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할인 쿠폰이나 상품 정보를 보내주고 결제까지 처리하는 사업인 O2O(Online to Offline)를 위해 라이프 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에 다음이 가진 방대한 지역 데이터와 지도 서비스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음은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통해 로컬 사업 경험과 관련 서비스, 영업력을 축적해 왔다. 패션과 뷰티, 맛집 정보를 가진 '라이프' 섹션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디지털뷰' 등 기존 로컬 사업과 연관된 오프라인 업체를 카카오톡 O2O 플랫폼으로 연결할 구상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서울버스앱의 DB를 카카오톡과 연동, '카카오 버스'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란 예측도 가능해진다. 주식정보를 카카오톡과 연계해 제공하는 '카카오 증권'형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측은 "로컬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면서 "서울버스앱이 가지고 있는 DB·인프라 측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카카오 페이' 불안한 출발?

'간편결제'로 큰 관심 받았지만
제휴사 적고 활용도 낮아 외면

스마트폰의 새로운 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가 출시됐지만 반응이 미지근 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선보인 카카오페이는 40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가 결제 시장에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 출시 전 부터 큰 관심을 모았으나, 실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제휴사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와 LG CNS가 함께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내에 결제 시스템을 적용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앱에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등록해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마칠 수 있어 간편성에서 기존의 앱카드 등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출시된 카카오페이는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은 연말쯤에야 출시된다. 또 현재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도 BC카드, BC제휴카드, 현대카드 뿐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몰이 전무하다는 점도 카카오페이의 약점이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물품 구입이 가능해 사실상 '카카오를 위한 카카오페이'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 관계자는 "5대 홈쇼핑과 홈플러스, 롯데닷컴 등도 도입을 확정했다"며 "10월부터 해당 모바일 사이트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휴업무의 경우 LG CNS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사업 초기라 제휴사는 점차 늘어 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애플페이' 역시 국내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아이폰 사용자는 250만명 수준에 불과한데다,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FC(근거리무선통신)를 인식할 수 있는 별도 단말기가 마련돼야 한다. 국내에 NFC단말기는 약 2만 5000대 가량에 불과해 애플페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단말기 보급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헌 기자 119@

"내비 검색, 이젠 말로 하세요"

음성인식 넘어 대화까지…'제로 터치' 신제품 잇따라

내비게이션이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며 똑똑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음성인식을 넘어서 최근에는 대화까지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출시되며 '제로' 터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자연어 음성인식이 가능한 '소프트맨 S681V' 신제품을 출시했다.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리모컨이나 스크린 터치 없이도 음성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시스템과 달리 "헬로 소프트맨"이라고 말하면, 음성인식 기능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숫자도 음성인식이 적용돼 주소 검색이 용이해졌다.

이에 앞서 파인디지털도 대화형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iQ 3D 7000v'를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로 말을 해도 인식을 해 대화하듯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장의 수는 30억개에 달한다. 업 계 에서는 음성인식을 강화한 대화형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행 중에도 목소리만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크린 터치로 사용할 때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 주행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범칙금 7만원에 해당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대화형 내비게이션을 찾게 만드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음성인식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조작 관련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권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단위:1000원/3.3m2)

구 분	2014년 8월말 기준	2014년 7월말 기준	2013년 8월말 기준	변동률 전월대비	변동률 전년동월대비
전국	8,395	8,333	7,954	0.70%	5.50%
서울	19,274	18,742	16,799	2.80%	14.70%
수도권	13,127	12,947	12,850	1.40%	2.20%
6대광역시	8,700	8,648	8,208	0.60%	6.00%
지 방	6,621	6,605	6,327	0.20%	4.70%

*월별 평균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간(작성기준월 포함)의 자료를 평균해 작성.(자료=대한주택보증)

민간아파트 분양가 석달만에 '반등'

8월 3.3㎡당 895만원 0.7% ↑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2014년 8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39만5000원으로 전월(833만3000원)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수도권(1.4%)과 6대광역시(0.6%), 지방(0.2%) 등 권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중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던 지역은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49만3000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월(815만3000원) 대비 4.2%, 전년동월(1072만1000원)대비 10.5% 상승한 수치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경기도 전세 재계약땐 '3000만원 더…'

아파트 전셋값 2년새 1억5646만원→1억8887만원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사이 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2주차 시세 기준 경기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86만7785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2년 전의 1억5846만원보다 3041만원 증가한 1억8887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과천시로, 2012년 2억5624만원에서 2014년 3억3039만원으로 무려 7415만원이 증가했다. 뒤를 이어 성남시가 2억6058만원에서 3억2195만원으로 6137만원이 늘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9·1대책을 발표하는 등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서울에서 밀려오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기지역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밀어붙이는 현대차, 신중한 삼성

'강남 금싸라기' 한전부지 경쟁입찰 마감 D-1

감정가 3조에 개발비까지 10조 전망… 재계 1·2위 '錢爭'

현대차 "신사옥 건립" 강한 의지… 삼성 내부검토 마무리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로 불리는 한전 부지 입찰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전 부지 입찰은 단일 자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과 재계순위 1, 2위의 대결이라는 상징성과 막대한 자본력의 투입으로 일찌감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한전은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18일 오전 10시 낙찰자로 선정한다. 입찰 참여자들은 한전이 감정가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입찰 하한가를 넘는 가격을 써내야 한다. 따라서 낙찰 가격이 4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면적만 7만9342㎡에 달하는 이 부지의 감정가는 3조3346억원으로 매각방식은 최고가 경쟁입찰이다. 쉽게 말해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써낸 곳이 부지를 차지하게 된다.

지난달 말 한전 부지 매각공고가 발표되자 가장 발 빠르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현대차였다. 현대차는 한전 발표와 동시에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 인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한전 부지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 공공성에 입각해 그룹의 글로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사옥과, 자동차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한류체험공간 등을 건설해 업무와 문화, 컨벤션 등이 조화를 이룬 서울시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의 전경.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현대차는 서울에만 30개 계열사에 직원이 1만8000명에 이르지만 양재동 본사 사옥이 불과 5개 회사, 50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 그룹 타운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단독으로 응찰할지, 아니면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알짜 계열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력 계열사를 주축으로 한전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지를 자체 자금으로 사들이더라도 실제 개발은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2009년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전 부지 일대를 초대형 복합상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2011년 한전 본사 인근 한국감정원 부지를 2328억원에 사들였다.

특히 그룹의 '캐시카우'인 삼성전자가 이번 사업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삼성전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규모가 올 상반기 말 기준 31조4000억원으로, 최근 그룹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고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74·80·87m²… 대형사들 틈새면적 '強秋'

분양가는 낮추고 공간은 넓게

대우·포스코 등 가을분양 풍성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6차' 조감도.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틈새 주택형'으로 돌파구를 열고 있다. 실사용 면적은 기존 평형과 거의 비슷하지만 분양가 부담을 낮춘 경제적 상품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남 창원시 용원택지개발지구에서 '창원 마린 2차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599가구 규모로 틈새면적 74㎡를 비롯한 59㎡, 84㎡의 중소형만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용원지구의 마지막 물량으로 바다와 산이 조망되는 배산임수 입지가 장점이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펜타힐즈) C3블록 일대 분양을 앞둔 '펜타힐즈 더샵'은 틈새면적인 63㎡, 72㎡를 비롯해 84㎡, 113㎡로 총 1696가구가 공급된다.

반도건설은 19일 양산신도시 물금택지지구 15블록에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6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59㎡ 외에도 80㎡, 87㎡를 선보이며 총 827가구로 구성된다.

강영관 기자 kwan@

마곡 미르웰 플러스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2014-건축과-분양신고-27호 (2014.09.15)]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14-건축과-신축허가-205] ■ 분양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구 업무용지 C14-4,C14-5블럭(지번표시는 추후 변경 가능함)
■ 대지면적 : 2,453.00㎡ ■ 연면적 : 18,671.38㎡ ■ 용 도 : 지하4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지하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지상14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유형	호수	공급세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약금	중도금 (40%)				잔금
			세대별 공급면적			주차장 / 기타	계약면적						(1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0%)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계약시	2014. 12. 30	2015. 03. 30	2015. 06. 30	2015. 09. 30	입주지정일
근린생활시설	B101	1	105.04	27.39	132.43	81.75	214.18	31.80	536,600,000	192,006,212	313,267,080	31,326,708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268,300,000
	B102	1	66.96	17.46	84.42	52.11	136.53	20.27	328,900,000	117,686,998	192,011,820	19,201,182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164,450,000
	B103	1	251.41	65.56	316.97	195.66	512.63	76.10	1,399,800,000	500,876,436	817,203,240	81,720,324	139,980,000	139,980,000	139,980,000	139,980,000	139,980,000	699,900,000
	B104	1	242.74	63.29	306.03	188.91	494.95	73.48	1,351,500,000	483,593,730	789,005,700	78,900,570	135,150,000	135,150,000	135,150,000	135,150,000	135,150,000	675,750,000
	B105	1	241.80	63.05	304.85	188.18	493.03	73.19	1,346,300,000	481,733,066	785,969,940	78,596,994	134,630,000	134,630,000	134,630,000	134,630,000	134,630,000	673,150,000
	101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27,500,000	296,096,050	483,094,500	48,309,45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413,750,000
	102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00,300,000	286,363,346	467,215,140	46,721,514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400,150,000
	103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86,800,000	281,532,776	459,333,840	45,933,384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393,400,000
	104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86,800,000	281,532,776	459,333,840	45,933,384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393,400,000
	105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00,300,000	286,363,346	467,215,140	46,721,514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400,150,000
	106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908,900,000	325,222,598	530,615,820	53,061,582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454,450,000
	107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908,900,000	325,222,598	530,615,820	53,061,582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454,450,000
	108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00,300,000	286,363,346	467,215,140	46,721,514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400,150,000
	109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73,200,000	276,666,424	451,394,160	45,139,416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0
	110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73,200,000	276,666,424	451,394,160	45,139,416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0
	111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73,200,000	276,666,424	451,394,160	45,139,416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0
	112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27,500,000	296,096,050	483,094,500	48,309,45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413,750,000
	113	1	42.00	10.95	52.95	32.69	85.64	12.71	894,100,000	319,926,862	521,975,580	52,197,558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447,050,000
	114	1	44.00	11.47	55.47	34.24	89.72	13.32	994,300,000	355,780,426	580,472,340	58,047,234	99,430,000	99,430,000	99,430,000	99,430,000	99,430,000	497,150,000
	115	1	49.00	12.78	61.78	38.13	99.91	14.83	1,107,300,000	396,214,086	646,441,740	64,644,174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553,650,000
	116	1	66.00	17.21	83.21	51.36	134.57	19.98	1,448,200,000	518,194,924	845,459,160	84,545,916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724,100,000
	117	1	67.50	17.60	85.10	52.53	137.63	20.43	1,127,400,000	403,406,268	658,176,120	65,817,612	112,740,000	112,740,000	112,740,000	112,740,000	112,740,000	563,700,000
	118	1	58.50	15.25	73.75	45.53	119.28	17.71	977,100,000	349,625,922	570,430,980	57,043,098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488,550,000
	119	1	58.50	15.25	73.75	45.53	119.28	17.71	1,015,400,000	363,330,428	592,790,520	59,279,052	101,540,000	101,540,000	101,540,000	101,540,000	101,540,000	507,700,000
	120	1	58.50	15.25	73.75	45.53	119.28	17.71	1,168,700,000	418,184,234	682,287,060	68,228,706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584,350,000
	201	1	127.53	33.25	160.78	99.25	260.03	38.60	1,420,100,000	508,140,182	829,054,380	82,905,438	142,010,000	142,010,000	142,010,000	142,010,000	142,010,000	710,050,000
	202	1	158.05	41.21	199.26	123.00	322.26	47.84	1,656,400,000	592,693,048	967,006,320	96,700,632	165,640,000	165,640,000	165,640,000	165,640,000	165,640,000	828,200,000
	203	1	120.99	31.55	152.54	94.16	246.70	36.62	1,268,000,000	453,715,760	740,258,400	74,025,840	126,800,000	126,800,000	126,800,000	126,800,000	126,800,000	634,000,000
	204	1	180.18	46.98	227.16	140.23	367.39	54.54	1,888,400,000	675,707,288	1,102,447,920	110,244,792	188,840,000	188,840,000	188,840,000	188,840,000	188,840,000	944,200,000
	205	1	176.67	46.07	222.74	137.49	360.23	53.48	1,735,800,000	621,103,956	1,013,360,040	101,336,004	173,580,000	173,580,000	173,580,000	173,580,000	173,580,000	867,900,000
	206	1	91.02	23.73	114.75	70.84	185.59	27.55	953,900,000	341,324,498	556,886,820	55,688,682	95,390,000	95,390,000	95,390,000	95,390,000	95,390,000	476,950,000
	207	1	68.68	17.91	86.59	53.45	140.04	20.79	719,800,000	257,558,836	420,219,240	42,021,924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359,900,000
	208	1	216.37	56.42	272.79	168.39	441.18	65.50	2,267,600,000	811,392,632	1,323,824,880	132,382,488	226,760,000	226,760,000	226,760,000	226,760,000	226,760,000	1,133,800,000

■ 공통사항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향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유행별 공히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②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3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②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청약신청자격
• 분양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호실은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2) 청약신청금 및 공급일정

구 분	적 요
청약일 및 장소	2014. 09. 17 (09:00~11:00) / 견본주택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신청금 100만원 / 수협중앙회(1010-1082-2912),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 / 무통장입금
추첨, 당첨자 발표일 및 장소	2014. 09. 17 (11:00~12:00) / 견본주택 (공개추첨,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계약일 및 장소	2014. 09. 17 (12:00 이후) / 견본주택

3)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청약신청서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본인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시 :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은행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은행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 (청약신청법인 명의)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 일체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2014. 09. 30 (12:00 이후)부터 (환불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불방법: 청약시 접수된 환불계좌로 자동이체 될 예정이며,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의 제출로 인한 환불지연, 미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환불계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14. 09. 17 (12:00 이후)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협중앙회	1010-1082-2711	(주)무궁화신탁

• 상기 계좌번호는 지정된 납부일 (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미결정
• 대출금액 : 근린생활시설 총 분양대금의 30% 범위내 중도금 무이자 대출 (단, 정부정책 및 대출기관의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금, 대출이 일선되지 않는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조건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규제, 정책변화, 시장환경의 변화와 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중도금 등 분양대금 납부의무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불가시'계약자 본인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당사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납부할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4)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접수증 및 청약신청금 수납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증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증 및 청약신청금 수납영수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및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계약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분양 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15년 12월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X 0.3025)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②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 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법 제63조의4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신탁등기 해제 등 기일 소요)
• 분양사무소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기계식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합니다.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필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할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관리신탁
• 건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 대금은 (주)무궁화신탁에서 관리한다.
• (주)무궁화신탁은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담당하며 그 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주)무궁화신탁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하여주는 경우에도 같다.
•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도금융거래정지회의소청,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회사정리법상 보전 처분등 기타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매도인이 보유한 본 사업시행지로서의 지위 및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시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거 매도인이 신탁사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다. 단, 분양대금채권이 신탁사에게 양도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책임은 분양사업자인 동암건설주)에게 있고 ㈜무궁화신탁은 면책도는 바, 매수인은 ㈜무궁화신탁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케이디종합건설(주) • 부동산개발등록번호: 서울 130037 • 사업방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분양관리신탁 • 2014년 08월 12일 건축허가 완료

■ 사업주체 및 관계회사 안내

구 분	분양사업자	시공사	분양대금관리	분양대행사
업체명	동암건설(주)	케이디종합건설(주)	(주)무궁화신탁	(주)늘푸른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 견본주택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9-9번지 • 분양안내: 1899-5333 • 홈페이지: www.mirwell2.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케이디종합건설㈜ / 분양사업자 동암건설㈜ / 신탁 무궁화신탁 / 분양 늘푸른

분양문의 www.mirwell2.co.kr
1899-5333

제38회 국가생산성대회 수상기업



함께 이루는 생산성향상 함께 누리는 밝은 미래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생산성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한 생산성혁신 기업들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혁신만이 대한민국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룩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시상제도입니다.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산업포장
(주)센트랄	(주)제이브이엠	백광의약품(주)

산업포장	산업포장	산업포장	생산성향상유공자
한국도키멕(주)	(주)코맥스	(주)풍산	(주)한웅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현대로템(주)	(주)원익머트리얼즈	퍼스텍(주)	(주)한성에프아이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종합대상 (국무총리표창)	종합대상 (국무총리표창)	생산성강소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오로라월드(주)	서울도시가스(주)	(주)벡셀	설악이앤씨(주)

고객만족대상	지식경영대상	미래경영대상	노사협력대상
동희오토(주)	건일제약(주)	(주)일신오토클레이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생산성강소기업대상	생산성강소기업대상	프로세스혁신대상	국가생산성챔피언 경진대회 우수팀
(주)동양산업	(주)성은물류	케이시시정공(주)	인천국제공항공사(총무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주관 : kpc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 맥주업계, 거품 문 'M&A전쟁'

'1위 AB인베브→2위 SAB밀러→3위 하이네켄' 물고 물리는 인수전

글로벌 맥주업계에 '합종연횡(合從連衡)' 바람이 거세다. 업계 1위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인베브)가 2위 SAB밀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SAB밀러는 3위 하이네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AB인베브는 SAB밀러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금융권과 접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AB인베브의 글로벌 맥주시장 점유율은 19.7%에 달한다. SAB밀러를 품에 안으면 점유율 30%에 육박하는 '맥주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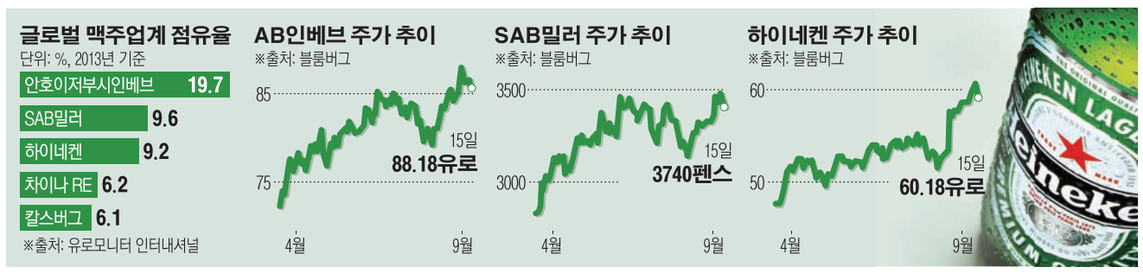
인수 규모는 1220억 달러(약 126조6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AB인베브의 SAB밀러 인수가 성공하면 지난 2008년 인베브가 520억 달러에 안호이저부시를 사들인 후 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지게 된다.

당국의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 AB인베브는 미국 내 밀러쿠어스와 중국 CR스노 등 SAB밀러의 합작벤처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AB인베브는 SAB밀러를 인수해 콜롬비아와 페루 등 남미는 물론 아프리카 등 신흥국 주요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글로벌 맥주시장 규모가 6510억 달러에 달하지만 지난 2004년 이후 연 평균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이는 주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몸집 키우기에 주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최근 年 성장률 1% 부진
남미·阿 등 신흥시장 공략
공격적 '몸집키우기' 주력

지난 2004년 브라질의 암베브와 벨기에의 인터브루가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 맥주업체로 도약한 이후, 4년 뒤 안호이저부시를 사들이면서 AB인베브가 탄생했다.

한편, SAB밀러는 하이네켄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앨런 클라크 SAB밀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취임 당시 M&A보다는 유기적인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필립 고램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는 "클라크 CEO는 SAB밀러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 SAB밀러를 '통합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네켄 측은 SAB밀러가 제시한 인수안을 거절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하이네켄 인수가 실패할 경우, SAB밀러가 몰슨쿠어스 인수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맥주업계의 M&A 행보는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업계 M&A 규모는 총 90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55억 달러에 그쳤다.

AB인베브가 지난 6년 동안 235억 달러를 M&A에 투입했고, SAB밀러는 156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M&A 기대에 힘입어 이날 관련 종목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벨기에 브뤼셀증시에서 AB인베브는 2.82% 올랐고, 영국 런던증시에서 거래된 SAB밀러는 9.82% 급등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하이네켄의 주가는 1.26% 상승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ZF, TRW 인수…덴소 제치고 車부품 2위

12조원에 성사…에어백·부식방지 센서 등 기술 차지
피아트·GM 등 완성車 가격협상 경쟁력 확보도 기대

독일 자동차부품업체 ZF가 미국의 경쟁업체 TRW오토모티브홀딩스를 117억 달러(약 12조1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ZF 이사회는 TRW 주주들에게 주당 105.60달러를 지급하기로 TRW 이사회와 합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7월 중순에 비해 16%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종가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다.

스테판 소머 ZF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인수로 양사의 소비자들은 한 지붕 아래서 고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ZF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에어백과 부식방지 센서 등 TRW가 강점을 보유한 기술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술은 교통사고 방지 및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업계의 최근 상황과 맞물려 ZF에게 상당한 시너지를 안길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특히 ZF는 TRW 인수를 통해 연 매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매출 기준 올해 세계 2위 자동차부품업체로 도약하게 됐다. 업계 1위는 독일의 보쉬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ZF는 업계 9위이며, TRW는 11위를 기록했다. 10위는 현대모비스가 차지했다. 두 기업이 합치면 현재 2위인 일본 덴소를 제치게 된다. 지난해 덴소는 35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ZF는 몸집을 키우면서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의 부품 공급 및 가격 협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RW의 최대 납품업체는 폭스바겐이다. TRW의 매출은 지난해 174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최근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ZF는 TRW 인수에 따른 시장과 당국의 반독점 우려를 의식해, 스티어링-시스템 합작사업의 지분 50%를 보쉬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폴크마 데너 보쉬 CEO는 이와 관련 "우리는 경쟁을 환영한다"라면서 "ZF의 야심과 관련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전기車 성장 한계" 테슬라 주가 급락 〈9.1%〉

배터리 충전방식 등 기술적 문제

영화 '아이언 맨'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 자동차업체 테슬라모터스 주가가 15일(현지시간) 9.1% 폭락했다. 그간 테슬라 주가를 뒷받침하던 월가의 낙관적 전망이 다소 후퇴한 영향이다.

미국 유명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두면서도 회사의 글로벌 성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보고서에서 "주가가 회사의 현재 상황보다 약간 앞서 있다"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나스는 테슬라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다면서 "전기자동차 자체가 세계적 스케일로 놓고 봤을때는 실패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테슬라의 성장세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터리 충전 방식인 전기자동차 특성상 업계 주류가 되려면 여전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기에 최근 무인자동차 등장 가능성도 테슬라 존재 이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주식 가치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마릴린 먼로랑 똑같죠?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거리에서 한 모델이 영화 '7년만의 외출'에서 마릴린 먼로의 명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마릴린 먼로가 뉴욕의 렉싱턴 거리에서 '7년만의 외출' 촬영을 한 60주년 기념으로 이뤄졌다. 뉴욕/AP연합뉴스

'아이폰6' 2차출시국, 한국은 제외

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 등 유럽국 대거 포함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2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은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2차 출시 22개 지역 명단을 공개했다. 2차 출시국에서는 26일 차세대 아이폰이 출시된다.

애플은 이에 앞서 19일 미국을 비롯해 독일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10개 지역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한다.

애플은 또 이날 지난 12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에 대한 선주문을 받은 지 24시간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초기 준비물량은 모두 소진됐으며, 주문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아이폰6플러스 등 일부 모델의 출하는 10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애플은 덧붙였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뉴욕 상장 앞둔 알리바바 中태자당에 '뒷돈' 구설수

'씨틱21CN' 수년간 적자수렁
지난 1월 인수직후 주가 급등
지분 보유 천샤오잉 등 이득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자국 내 강력한 정치파벌이며 혁명원로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수에 올랐다.

알리바바그룹과 잭 마 알리바바 회장이 부분적으로 보유한 사모펀드 윈펑캐피털이 홍콩 소재 텔레마케팅 및 제약정보업체 '씨틱21CN'을 공동 인수하는 과정에서 태자당 인사들이 막대한 이문을 챙겼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알리바바 측은 지난 1월 씨틱21CN을 1억7000만 달러(약 1764억원)에 인수했다. 문제는 중국 국영업체 씨틱그룹에 속했던 이 업체의 제약 부문 연매출이 740만 달러에 불과하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중국 혁명원로인 장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아들인 장렌양과 며느리 천샤오잉〈사진〉 부부가 핵심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장렌양은 지난 4월까지 이사를 역임했고 천샤오잉은 지금도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알리바바가 인수한 직후 회사 주가는 7배로 뛰었고 그 결과 천샤오잉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씨틱그룹의 회장을 역임하고 역시 씨틱21CN에서 지난 4월까지 회장을 지낸 왕쥔(王軍·73)도 태자당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왕전(王震) 전 중국 국가부주석으로 대장정에 참가한 홍군 원로이며 1989년 톈안먼사태 당시 시위 무력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쥔 전 회장도 지난 3월 3000만주의 회사 지분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알리바바는 이 회사가 가진 의약품 바코드 추적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쓰면 중국 내 아직 사용되지 않는 백신 20만개의 위치를 하루 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짜약 적발 등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설명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회사 경영의 투명성에 의문을 줄 소지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JP모건체이스와 기타 월가 은행들도 중국 고위층 자제를 취업시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알리바바는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모가 범위를 종전의 60~66달러에서 66~68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수요가 강한 것이 그 이유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OECD, 美 올 성장률 전망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추는 등 주요 선진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는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3.1%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5월의 2.6%에서 0.5%포인트 낮춰진 것이나 내년 전망치는 1.0%포인트 높아졌다.

OECD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2%에서 0.8%로 낮추고,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1%로 밝혔다.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2%에서 0.9%로 하향됐다.

비회원국 중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7.4%로 이전과 같았다. 내년 전망은 7.3%로 제시됐다. 인도 경제는 올해 5.7%, 내년 5.9% 각각 성장할 전망이다.

MS,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인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스웨덴의 게임제작사 모장을 25억 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X박스원을 통해 게임 콘솔기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MS는 모장을 인수해 게임 사업과 모바일 비즈니스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모장은 MS의 게임 스튜디오 사업으로 통합될 전망이며, 인수는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거래는 지난 2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의 취임 이후 MS가 진행한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로 관심을 끌고 있다.

나델라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장의 마인크래프트는 위대한 게임 프랜차이즈 그 이상"이라면서 "MS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는 PC는 물론 애플의 운영체제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등 모든 플랫폼에서 마인크래프트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장은 지난 6월까지 5400만 카피 이상의 마인크래프트를 판매했다.

이날 모장 인수 소식이 전해진 후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MS의 주가는 전일 대비 0.97% 하락한 46.24달러로 마감했다.

18K골드 '애플워치' 가격 125만원

18캐럿(K) 금으로 된 최고급 애플워치 가격이 1200달러(약 125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5일(현지시간) 패션과 장신구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애플은 지난 9일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케이스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애플워치'와 경량 알루미늄의 '애플워치 스포츠', 18K 금으로 만들어진 최고급의 '애플워치 에디션' 등 3가지 컬렉션을 선보였다.

애플은 워치 최저 가격이 349달러라고 밝혔으나 각 컬렉션의 세부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에디션 제품 케이스 전체가 금으로 된 것인지 표면만 도금한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이 제품이 일반 금보다 2배의 강도를 지니도록 금속공학자들이 특별히 개발한 18K 금으로 만들어지면 디스플레이는 광택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 케이스를 만드는 데만 600달러의 비용이 들고 안에 들어가는 전자기기와 마진을 감안하면 소매가격이 12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금 시세와 가죽, 사파이어 글래스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 책정은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테크크런치는 덧붙였다.

"소외된 프로골퍼 지원" 中企 뭉쳤다

다코다·동성 등 7개사 '모리턴 골프구단' 창단
모리앤 이종승 회장 앞장… 골프용품·격려금 등





모리앤 이종승 회장. 오른쪽 사진은 '모리턴 골프구단' 창단식에서 선수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국내 중소기업들이 여자 시니어투어나 드림투어, 점프투어, 스크린골프 등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구단을 출범했다. 정규 투어를 뛰는 프로선수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골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체로 나서 골프단을 운영하는 사례여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리앤, ㈜다코다, ㈜시선커미니케이션, ㈜동성, 피지알골프, ㈜유오엠, ㈜유컴테크놀로지 등 7개 업체는 지난 15일 강원도 문막 센츄리21컨트리클럽에서 고우순, 김경분, 홍의선, 양승아 등 여자 시니어프로 선수들, 드림투어·점프투어 선수, 신인 프로선수, 스크린골프대회인 골프존G대회에서 뛰는 선수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모리턴 골프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 골프단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인 모리앤이 생산하는 천연한방샴푸 브랜드 '모리턴'에서 나왔다. 구단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모리앤 이종승 회장은 과거서부터 골프사랑이 남달라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프로골프를 지원해왔다. 실제 모리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2월 파트너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내년까지 후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모리턴은 햇볕에서 장시간 경기를 해야 하는 골퍼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는 천연한방샴푸다. 골프를 좋아하는 이 회장의 성향과 제품 특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골프단 출범까지 이어졌다. 모리턴구단 소속 골퍼들은 앞으로 각종 대회 때마다 7개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골프 용품과 의류 등을 받게 되며, 성적에 따라 일정 규모의 격려금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탤런트 이영범, 가수 이범학, 개그맨 배동성씨 등 연예인 7명도 합류했다.

모리앤 등 7개 중소기업들이 이 같이 골프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은 시니어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등에 출전하는 골퍼들이 정규 투어 선수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상금 수준도 열악해서다. 시니어투어, 드림투어 등은 상금 규모가 정규 투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일부 선수들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7개 중소기업 대표들은 6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소외된 골퍼들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유 기자 thec98@

션, 아이스버킷챌린지 성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돕는다

총 10억 모금액 중 1억 '여울돌' 기부



가수 션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모은 성금 중 1억원을 희귀난치병 어린이 후원단체인 여울돌에 기부했다.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승일희망재단의 공동대표인 션은 15일 여울돌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를 통해 모은 총 10억원의 기부금 중 1억원을 기부했다. 여울돌은 지난 2002년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지난 4주 동안 승일희망재단에 10억원이란 큰 기금이 모였다. 지금도 많은 분들의 ALS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루게릭병 외에 다른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많다. 아직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루게릭병에 대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을 다른 희귀난치병 환우에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션은 "나눔의 이름으로 세워진 재단들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그 첫 걸음으로 10억 기금 중 1억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션은 평소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해 왔으며, 아내 정혜영과 6년째 홀트아동복지회에 매년 1억원씩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51.5km의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 총 5150만원을 푸르메 재단에 기부했다.

최두선 기자 sun@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원카드 원아시아' 프로젝트 제안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지역 아시아 여행"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서 주문



뉴시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아시아 모든 국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국 재계가 내놓았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관광 촉진을 위해서다.

권태신〈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해 모든 아시아 국가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표준을 통합하는 '원 카드, 원 아시아'(one card, one Asia)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미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국가는 통합된 표준의 교통시스템을 도입토록 하자는 것이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은 2010년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주도로 창설돼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기업연합회, 인도산업연맹(CII) 등 아시아 12개 국가의 14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재계 협의체다.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권 원장은 "국가마다 다른 교통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점을 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지역별 표준화를 통해 무역 원활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유럽, 미국의 사례를 본떠 현재 한·중·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표준 협력을 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이어 역내 교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아시아 민간경제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는 아시아 10개국의 15개 경제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지역 성장전략, 경제통합, 에너지 및 환경 협력, 인프라 개발, 친기업환경 조성, 인력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대림산업 '아빠와 힐링캠프'

대림산업은 지난 13~14일 1박 2일에 걸쳐 충남 서산에서 직원과 자녀들을 초청해 '아빠와 힐링캠프' 행사를 진행했다. 1차, 2차에 걸쳐 진행된 캠핑 행사에는 총 120여명의 직원과 자녀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현장 직원들이 자녀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림산업은 작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은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핑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직원과 자녀들은 캠핑장 인근에서 갯벌 체험과 카약 등을 즐긴 후 바비큐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美 '재즈 피아니스트' 조 샘플 별세



AP뉴시스

미국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 조 샘플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악성중피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샘플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고교 시절 테너 색소폰 연주자 윌프 퀠더, 드럼 주자 네스버트 후퍼와 함께 '스윙스터즈'라는 팀을 결성해 연주를 시작했다.

1961년 자신이 속한 그룹 '재즈 크루세이더스'가 발표한 첫 앨범 '프리덤 사운드'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밴드 이름을 '크루세이더스'로 바꾼 뒤 전자기타와 키보드를 이용, 팝과 록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재즈에 섞어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DJ DOC과 웅산의 리메이크로 한국에도 알려진 '스트리트 라이프'는 1979년 빌보드 팝 싱글 차트 36위에 올랐다.

그의 음악은 미국 힙합가수 투팍의 '디어 마마'를 비롯해 다양한 힙합 음반에 샘플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의 마지막 앨범인 '질드런 오브 더 선'은 이번 가을 유작 앨범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윷놀이하며…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건설현장 추석맞이



한화건설은 지난 8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석맞이 명절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최광호 전무를 비롯한 이라크 BNCP건설현장 임직원들은 윷놀이와 단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함께하며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최광호 전무는 "임직원 한명, 한명이 해외건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면서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이역만리 타향에서 땀흘리는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현재 10만 세대 하우징 공사가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전체 공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건설은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지난달 이라크 정부로부터 본 공사의 두 번째 토목기성 8708만 달러(약 855억원)를 수령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3차 중도금 약 3억8750만 달러(5%)와 3차 토목기성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건설은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과 송배전, 진입도로, 하수처리시설, 운동장, 주유소 등 26억 달러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내 소셜 인프라시설 추가 공사의 수주도 가시화되고 있다.

강영관 기자 kwan@

김춘복 차병원 신임 이사장



차병원 이사장에 김춘복〈사진〉 재단 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차병원그룹 의료재단인 성광의료재단은 김춘복 의료재단 상임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광의료재단은 실질적인 차병원그룹의 병원 전체를 총괄하는 재단으로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춘복 이사장은 22년간 차병원에 근속한 인물로 △그룹 홍보총괄본부 본부장 △강남 차병원 행정 부원장 △CHA의과학대학교 학교 법인 상임이사 △의료재단 상임이사 △차케어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성제 기자 psj@

인사

◆새만금개발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이철

◆KB국민은행 ◇승진 〈수석지점장〉 △마천동 신현석 〈부장〉 △IT기획 안방현 〈지점장〉 △중계북 박강일

◆SBI저축은행 ◇전무 승진 △SBI2저축은행 대표이사 임진구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문석 ◇실장 승진 △정보시스템실장 이종석

◆코리아타임스 △편집국 경제부 산업팀장 이효식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정치경제부 정부세종청사취재본부장 박기성

'정글의 왕 타잔' 데니 밀러 사망



조니 와이즈뮬러 주연의 영화 '정글의 왕 타잔'을 1959년 리메이크한 작품에 출연했던 미국 영화배우 데니 밀러가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4일(현지시간)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 "24살의 나이로 타잔 역을 맡았던 밀러가 루게릭병을 오랫동안 앓아오다 세상을 떠났다고"전했다.

1931년생인 밀러는 역대 타잔 역을 맡았던 배우 중 최고령 생존배우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TV 시리즈 '마차 행렬'에서 듀크 새년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으며 '브래디 번치'등 약 20여편의 영화를 남겼다.

밀러는 인생의 후반기에는 건강 전도사로 분해 독자들에게 건강과 체중 유지 비법을 알리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항일운동 애국지사 이태길 선생 별세



애국지사 이태길 선생이 지난 14일 오후 11시 9분께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0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한 선생은 1939년 비밀결사인 대구사범학교 문예부를 조직하고 민족의식을 기르기 위한 연구회 활동을 했다.

이후 창녕군 대합국민학교에 몸을 담고 연구 활동을 계속하다가 이러한 내용이 일제에 발각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中 영화감독 왕취안안, 성매매 혐의 체포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인 왕취안안이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P뉴시스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인 왕취안안이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베이징 경찰은 왕 감독이 며칠 전 베이징의 아파트에서 800위안(약 13만5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왕 감독이 사흘 연속으로 성매매했다고 덧붙였다.

왕 감독은 영화배우인 아내 장위치가 뉴욕패션쇼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윤락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6세대 영화감독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왕취안안 감독은 2007년 '투야의 결혼'으로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영화 '백로원'이 경쟁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

최근 중국이 성매매와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하며 유명인도 관련 혐의로 걸려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청룽(성룡)의 아들인 팡쭈밍과 대만 출신 꽃미남 스타 컨전둥이 마약복용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왕 감독은 지난 2011년 21살 연하의 배우 장위치와 결혼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부음

▲김병철(전 울산지방경찰청장)씨 모친상 = 15일 오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울산영락원 301호, 발인 17일 오전 9시, 010-9182-0388

▲이해성(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성진(영창테크 차장)씨 부친상, 이해우(동아대학교 학생취업지원처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7시, 동아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51-256-7070

▲황천모(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씨 부친상 = 15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오전, 010-8993-9832

CEO 칼럼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IT트렌드, 전략적 접근하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은 단어조차 낯설고 생소했다.

그런데 어느새 수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구매하며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제 IT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을 만큼 IT 트렌드는 모든 산업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변화의 주기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필자는 바로 그 변화의 중심인 IT산업, 그중 가장 변화가 빠르고 유연한 소프트웨어(SW)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자고 나면 등장하는 신기술과 상상을 뛰어넘는 제품을 접할 때면 긴장감이 느껴지곤 한다.

더불어 경영인으로서 트렌드를 기업의 새로운 기회로 연계시키는 데 대한 고민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트렌드는 기업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에 기업 나름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트렌드를 내다보고 한 발 앞서 준비하는 타이밍. 삼성전자는 2012년 산업의 중심이 HW에서 SW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소프트웨어센터를 건립했다. 이미 SW전문인력 4만 명을 확보했고 독자적 운영체제(OS) 개발을 추진하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SW중심사회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하며 SW기업으로의 전환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필자도 2011년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의 경영을 맡게 되면서, 한컴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클라우드'를 주목하고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는 한컴만의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기술 기반의 IT 트렌드는 기업이 실제로 기술을 체득하고 상품을 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트렌드를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내다볼 수 있는 분석력과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추진력이 중요하다.

또, 기업은 트렌드에 대응함에 있어 수동적 팔로워(Follower)가 아닌 능동적 리더(Leader)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IT산업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다. 적극적으로 트렌드를 리드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적 필름 제조사였던 코닥이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필름 시장 보호를 위해 트렌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 확보와 기술개발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트렌드를 이끌어야 한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국내외 유수 기업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여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도 IT 트렌드를 창조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인 것이다.

트렌드는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경영진의 혜안과 선택에 달려 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변화에 한 발 앞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정부의 못된 버릇 하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이런저런 정책을 제 멋대로 결정하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거나 분담시키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모두 그렇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재정 문제는 그 대표적 일 중의 하나다.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등 인심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다 썼다. 그러고 난 뒤 부담은 같이 지자는 것이다.

그 바람에 지방정부는 벼락을 맞았다. 2008년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7.4%였다. 그러던 것이 2014년에는 24.5%가 되었다. 7.1%포인트, 돈으로는 약 18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고지원이 크다고 하나 지방정부당 몇 백억원씩을 더 쓰게 된 셈이다.

특히 복지수요자가 많은 대도시 자치구의 형편은 말이 아니다.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던 복지재정이 얼마 전 40%가 되더니, 어느새 5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 중에서는 비교적 형편이 좋다는 서울의 자치구들도 아우성이다. 일부 자치구는 바로 다음 달 지불할 기초연금이 걱정인 상황이다.

참다못해 지난달 중순 서울시 구청장들이 나섰다. 이어 추석 직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두 나섰다. 요구는 간단하다. 부가가치세의 11%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는 등 돈을 더 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복지 디폴트', 즉 돈이 없어 무상보육이고 기초연금이고 더 이상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중앙정부의 답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그 하나, 복지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방비 분담은 당연하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5%로 되어 있던 지방소비세를 11%로 올려주는 등 돈은 줄 만큼 줬다. 그리고 셋째,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필요하면 얼마나 방만한지 조사를 하겠다.

지방정부는 다시 펄쩍 뛴다. 지방소비세 늘린 것은 부동산 시장 살리느라 취득세를 영구인하한 것에 대한 보전이었고, 그 외 더 줬다고 하나 늘어나는 지출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방만경영 사례가 있으면 그 지방정부를 잡을 일이지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지방정부까지 같이 엎어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고 되묻는다.

누가 옳으냐? 국민들은 관심도 없다. 어차피 누가 내든 받게 되어 있는 돈이고 서비스다. 싸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다. 언론도 그렇다. 지방이 딱해 보이기는 하나 다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일로 안 써도 될 돈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이게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도 돈이지만 이 문제에는 돈 이상의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다. 다름 아니라 글을 시작하면서 말한 바로 그 '못된 버릇'이다.

어떻게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국회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상의 한 번 없이 말이다. 집안일을 생각해 보라. 초등학교 학생인들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한 뒤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면 되겠는가.

이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중앙정부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걸린다. 당장에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재정에 대한 고민을 덜하게 된다. 또 중앙과 지방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생활 전체에 그만한 손실이 따르게 된다.

제안을 하나 하자. 미국의 경우 1995년 '예산지원 없는 의무사무 개편을 위한 법'(Unfunded Mandate Reform Act)을 만들었다. 주와 지방정부에 일정액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그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했다. 연방정부 스스로 그러한 부담이 지방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연구하게 하기도 했다.

지방정부나 그 관련 단체는 제쳐 놓은 채 안전행정부의 의견만 구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런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있다.

온라인 와글와글 전국 음식점 한달평균 3만원 적자 '창업의 무덤'



○…애견카페가 동물학대 주범? 애견카페 내 강아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며 상당수는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애견카페 냄새 너무 나고 비위생적임. 배설물 여기저기, 개털 천지에", "애견카페는 개 주인들이 개 데리고 들어가는 카페인 줄 알았는데 카페에서 호객용으로 개 키우는 거였구나", "여의도에 소문난 애견카페가 있다. 한 300마리 되는데 짖고 까불고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 개들부터 청결하게 관리시켜라. 악취 풍기지 말고",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건데, 개들이 털이 부스스하고 병이 날 정도인 곳은 정말 극단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고요. 이런 곳은 신고를 받아서 즉각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10㎡ 남짓한 좁은 공간에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 개들끼리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누굴 욕할 게 아니야. 애완견이 돈벌이로 전락한 현실이 문제지" 등 지적이 많았다.

○…음식점은 창업의 무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은 한 달 평균 3만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요즘 창업하면 쪽박 찬다. 자영업 15년 나도 슬슬 접으려 한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6·25전쟁 때 중공군이 쳐들어 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창업을 해대니", "원래 식당 했던 사람들은 계속 식당 하고, 회사 그만두고 하려는 사람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껴서 살아라. 얼마 안 되는 돈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지 말고", "음식맛은 죄다 조미료 맛인데 아무나 창업질하니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지", "상가를 임대해서 하면 돈 못 번다. 식당은 주로 1층을 쓰게 되는데 상가 건물 중 제일 비싼 데가 1층이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을 건물주인이 다 벌어갈 뿐", "이것 또한 천차만별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더 잘나가는 음식점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근거야? 모집단을 알려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형근 인턴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20-30대 젊은층 초고도 비만율 급증 이유
2. 2014 롯데 신입사원 채용 키워드 4가지
3. 배설 장군 후손들, 영화 '명량' 측 고소
4. 아이폰6·6플러스 선주문 첫날 400만대 팔려
5.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배 증가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이준기 "남상미와 키스신 가장 기억"



배국남닷컴이 15일 배우 이준기를 만났다. 이준기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BS 2TV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극본 이정우, 한희정/연출 김정민, 차영훈)' 종영 소감과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털어놨다. 그는 "드라마가 종영한 지 열흘 정도 지났다. 그간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며 많은 술자리를 가졌다"며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고, 아직 함께 보내야 할 사람들이 많아 그날들이 기다려진다"고 드라마 종영 후의 근황을 전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준기는 '조선총잡이'에서 개화기 시대 민중의 영웅이 되는 총잡이 박윤강 역을 맡아 열연했고, 수목극 동시간대 1위 자리를 꿰차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는 "작품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종영해서 기쁘다. 촬영 내내 걱정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한국형 히어로물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고생한 만큼 사랑받고 끝나서 기쁘고 지금은 홀가분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준기는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상대배우 남상미와의 키스신을 꼽았다. 그는 "남상미씨와 동굴에서의 키스신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배우와 친숙해져서인지 애정신을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준기의 키스 능력이 진화하지 않았나 한다. 다음 작품에서는 진일보한 로맨스신을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준기는 히어로물 전문배우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히어로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항상 갈증이 있다. 이번에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났다. 더 많은 영웅담을 못 보여 드린 것 같아 아쉽다"며 "히어로물을 좋아하지만 배우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 애정신에 욕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백기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차기작을 살펴보고 있다.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함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인기교수의 애칭은 '2AM'?

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단다. "이피엠"(2PM)이 무엇이냐고. 실은 "투피엠"이라 불러야 옳은 것을, 유명 아이돌그룹 이름조차 모르는 교수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다. 한데 정작 학생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교수의 애칭은 2AM이라는 것이다. 아이돌 가수 이름에서 차용한 것이긴 하지만, 의미인즉 문자 그대로 새벽 2시라는 뜻이요, 배경인즉 학생들이 올리는 질문에 새벽 2시도 마다않고 즉각 답을 회신해주는 교수들을 가장 좋아하는 데서 연유했다 한다.

결국 자신의 요구나 욕구를 즉각 충족시켜달라는 신세대다운 의식이 유머러스하게 표현되고 있는 셈인데,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ve), "엄지족", "앱(App.)세대"로 불리는 신세대들의 성장 과정을 고려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픈 부모들의 양육 관행이 오늘의 신세대 성향을 부채질해왔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웃고 넘기려다 호기심에 몇몇 자료를 뒤적여보니 서구에서도 우리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 신세대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상사 스타일을 주제로 한 타임(Time)지 설문조사 결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주는 상사"가 1위로 지목되었다 한다. 이 결과를 놓고 타임지 기자들은 "민감한(sensitive) 보스의 시대가 왔다"는 타이틀을 붙이는 센스를 발휘했다. 책임감 및 추진력을 상사의 덕목으로 생각해온 기성세대 입장에선 다소 치기(稚氣)어린 답일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신세대가 주도하는 조직 정서에 뚜렷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음이 아닐는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이들 신세대로부터 발견되는 탈 권위주의적 성향이다. 신세대의 탈 권위주의는 권위를 완전히 벗어나(脫) 모든 형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권위의 기반이 지위로부터 개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과거의 권위가 가장이라는 지위에, 상사라는 자리에, 교수라는 신분에 부여됐었다면, 오늘날의 권위는 가족을 위해 선물을 아끼지 않는 산타클로스형의 유능한 가장, 부하 직원의 요구를 세심히 배려해주는 민감한 상사, 학생문화에 공감하고 학생 질문이라면 새벽 2시도 마다하지 않는 성의있는 교수 개개인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 지위 권위(positional authority) 시대로부터 개인 권위(personal authority) 시대로 이동해가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또 있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명분을 찾고 행동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신세대는 보다 실용적이고 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전 세계무대에서 금메달이라도 따게 되면 조국과 민족을 향한 열정에 애국심이 발동하곤 했지만, 요즘은 '나 자신이 즐기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쿨한(?) 고백이 단골로 등장한다.

덕분인가, 예전 우리는 "위대한 기업"을 선망했고 "초우량 글로벌 기업"을 갈망했던 기억이 새롭지만, 최근 추세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싶은 기업", "내부 고객(직원)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진정 일하고 싶은 기업" 등이 부상 중이다. 이 역시도 추상적 은유보다 나의 삶과 직결되는 표현을 선호하는 신세대 정서의 신속한 반영 아니겠는지.

요즘 대부분의 조직에서 신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더불어 이들과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인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듯하다. 와중에 "생각하는 힘, 문제해결 능력 모두 바닥이다", "참을성도 근성도 없다", "갈등을 참아내고 조정하기보다 피하려고만 한다", 심지어 "외계인을 보는 기분이다" 등등, 신세대의 약점과 단점이 부각되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성장과정을 토대로 차별화된 정서와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신세대가 다수를 점하기 시작한 마당에, 이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동시에 역량을 개발해주는 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아닐까?

객석

영혼의 스트레칭, 독서



이 병 유
삼성디스플레이 개발팀 사원

한해가 시작될 때마다 거창한 학습계획을 세워 보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지간한 각오로는 퇴근 후 책상 앞에 앉는 일이 쉽지 않다.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새로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의 연속이다.

그럴 때 나는 책을 꺼내 든다.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책이 아닌 잠시나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가벼운 책들이다. 책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새로운 정보는 세상과 일상을 대하는 또 다른 시각을 길러준다. 마치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새로운 근육을 쓰게 만드는 영혼의 스트레칭이라고나 할까.

얼마 전 읽었던 책도 그랬다. 김현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세상을 여행하는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다. 방황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필수 심리 실용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일단 얇고 가볍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고민하는 '마음', '상처', '애도', '가족', '사회', '연애', '성공', '생존'이라는 여덟 개의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위의 화두들과 마주한다. 명쾌하진 않아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은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이 책이 주는 위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만이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고민은 한결 가벼운 것이 된다. 그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람들 속에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모를 일이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집어든 책 속에서 오랫동안 내 머리와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고민의 해결책이 있을지도.

기자의 눈

스타트업, 홍보는 어떻게?



조 성 준
미래산업부/tiatio@

최근 스타트업의 CEO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고, 나머지는 홍보 채널의 부족이다. 스타트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홍보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규모와 인지도가 작아 홍보의 기회가 적고, 생존이 우선인 스타트업에 있어서 홍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회사 설립과 연구개발, 그리고 홍보 비용으로 1:1:1의 비율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생존을 다투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홍보 비용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홍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마케팅과 홍보 관련 비용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그만큼 스타트업이 홍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홍보에 취약한 만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스타트업은 1만5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스타트업은 홍보 활동 자체를 못하고 있을 뿐더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곳도 많다.

스타트업이 가장 큰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해에 열리는 스타트업 대회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고, 이마저도 특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없다면 외면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은 비용 대비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스타트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창조경제를 꿈꾸는 국가의 정책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세워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꽃들의 36.5℃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함정'



"여자들 훔쳐보기 몰카인가요." 한 시청자의 반응이다.

하지만 제작진은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든다는 서른 즈음, 여자들은 수십가지 고민을 안고 산다… 이 프로그램은 드라마로만 보아온 바로 그 이야기를 대본 없는 리얼리티로 보여주고자 한다… 청춘의 끝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서른 즈음 여자들의 진짜 이야기! 그녀들의 은밀한 일상 속에 보여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창한 기획의도를. 바로 20~30대 변호사, 헤어디자이너, 영어강사, 회사원 등 4명의 여성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SBS '달콤한 나의 도시'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룸메이트', MBC '나 혼자 산다' 등 연예인과 그의 가족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홍수다. 출연자의 자살로 막을 내린 SBS '짝' 이후 주춤하던 일반인 출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달콤한 나의 도시'처럼 다시 부활하고 있다. 한 시청자의 지적처럼 일반인과 연예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말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1980년대 미국 방송사에서 개발한 포맷으로 다큐멘터리와 오락성 강한 드라마, 코미디, 쇼, 예능 등을 시청자 구미에 맞게 혼합한 것이다. 최근 일반인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적은 제작비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포맷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쓰레기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리얼리티 TV는 TV에 전시되는 개인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인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립범죄행동학교 연구원 올리비에 라작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다.

왜 그런 것일까. 시청률을 위해 출연자의 인권과 인격,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볼거리 위주, 즉 시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내용을 극대화하는 데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인과 일반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앞다퉈 시청률을 위해서 자극과 선정성, 훔쳐보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날것 그대로, 100%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반응을 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자 행태에 일희일비하며 찬사와 비난을 쏟아낸다. 그런데 '100% 리얼'이라는 표현은 시청자의 눈길을 잡기 위한 술수적 표현에 불과하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구성과 촬영, 그리고 편집이라는 인위적인 과정을 거친 재현(representation)과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100%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맥락은 거세된 채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더 나아가 리얼리티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자극성 등을 배가시킨다. 이 때문에 출연자나 시청자에게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쏟아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짝'에 출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모씨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다. 제작진과 출연자, 그리고 시청자는 알아야 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숨겨진 함정을, 그리고 그 함정의 파장 역시 엄청나다는 것을.

문화부 기자 flowersle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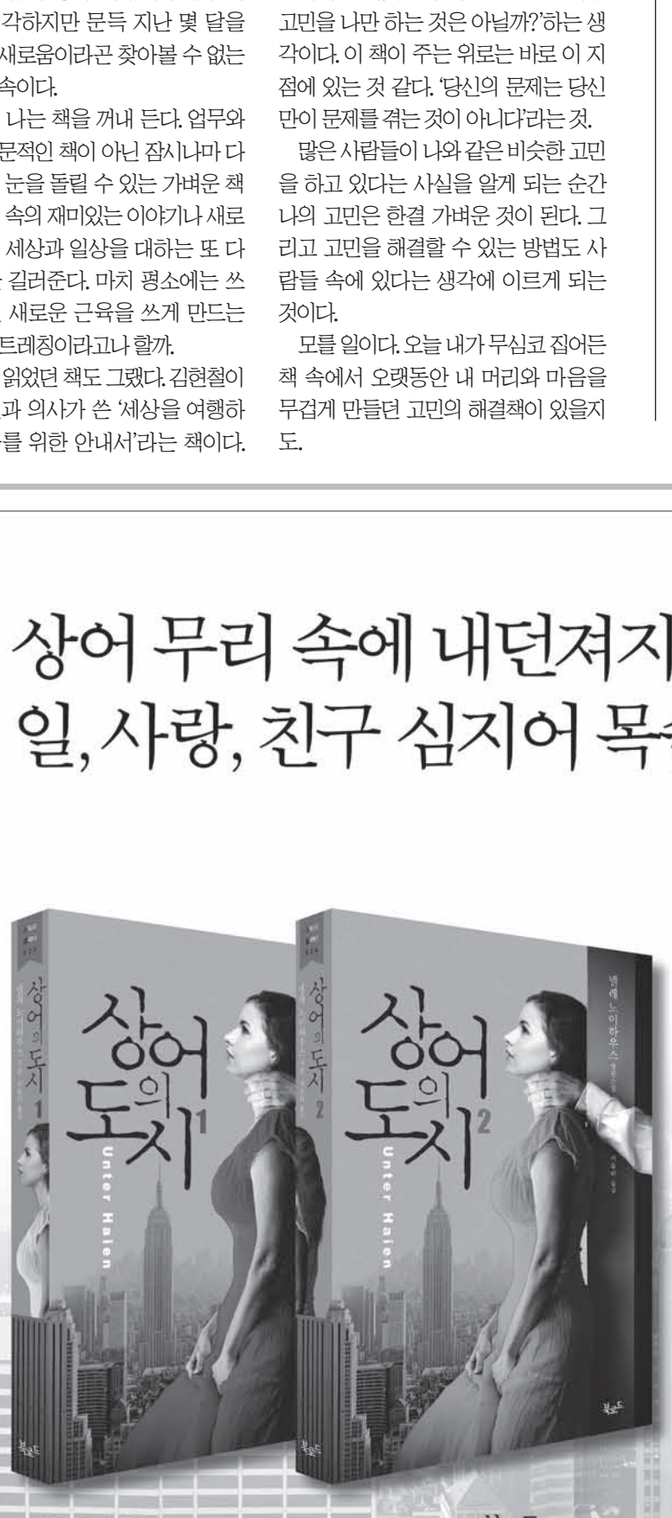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상어 무리 속에 내던져지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진다
일, 사랑, 친구 심지어 목숨까지도…



Unter Haien
상어의 도시 1·2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의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첫 번째 장편소설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 서유리 옮김 | 각권 값 11,500원 북로드

2014년 여름,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우누스 시리즈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 김진아 옮김 | 각권 값 13,800원

KBS '엄마의 탄생' 재합류한 강원래·김송 부부

"늦둥이 볼 나이에 첫아이… 하루하루가 소중"

"10%의 희망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 불임·난임 부부들에게 힘 되고 싶어"

"까꿍~ 까꿍~" 김송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 엄마의 포스가 느껴진다. 다소 까칠한(?) 강원래도 아들 산이 이야기에 입이 귀에 걸린다. 영락없는 아들바보가 된 한 아이의 부모다. KBS '엄마의 탄생'에 재합류한 강원래·김송 부부의 모습이다.

강원래와 김송 부부가 아들 산이 덕에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 있다. 결혼 13년 만에 아이가 생긴 데다 강원래는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꾸준히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어렵게 품에 안은 자식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뉴시스

강원래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시겠어요'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기분이 좋다"고 아빠가 된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10%의 희망이라고 했다. 10번 중 1번은 된다는 이야기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송은 "선이가 태어난 지 약 2달이 됐다. 초보 엄마 아빠다. 늦둥이를 볼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래서 더 귀하다"며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도 많지만 선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낀다. 책임감도 생긴다"고 털어놨다.

특히 김송은 남편 강원래와 빼닮은 보조개를 자랑하며 엄마가 된 설렘과 행복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아빠가 된 이후 달라진 강원래의 모습을 폭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송은 "임신 전에는 남편 조수 역할이었는데, 임신하고 나니 조금 달라졌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기세가 역전이 됐다"며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 됐다. 아이에게도 다정한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점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강원래는 "아빠가 된 이후 김송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눈만 마주쳐도 무섭다"며 "모든 남편이 공감할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라고 말끝을 흐려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주변 사람들과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된다"며 "아이에게 뭐가 좋은지 인터넷 검색하면서 알아보기도 한다"고 아들 선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강원래는 "선이가 100일을 지나고, 돌을 맞이하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내에게 맞춰가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전국 누비며 하루 3~4개

스케줄과의 전쟁



지난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故 권리세의 발인식에서 애슐리, 주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고 당시 머리를 다친 故 권리세는 병원으로 이송돼 장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7일 오전 10시10분께 숨을 거뒀다. 뉴시스

아이돌 교통사고 빈발 이유는

지난 3일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고은비·권리세 빗길 사고로 숨져 과거 슈퍼주니어·시크릿도 중상

음반시장 줄며 행사출연 집중 인건비 아끼려 매니저가 운전 피로 누적… 졸음 사고 잇따라

14일 방송된 KBS 1TV '열린 음악회' 말미에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를 추모하는 무대가 꾸며졌다. 레이디스코드는 대구에서 진행된 '열린 음악회' 녹화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팬을 둔 아이돌 스타의 죽음이자 꽃다운 나이에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의 죽음이었다.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와 은비, 리세의 죽음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아이돌 스타 전체의 안전불감증과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스타들의 교통사고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슈퍼주니어는 지난 2007년 스케줄을 마친 후 올림픽대로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멤버 규현이 중상을 입었다. 걸그룹 시크릿은 2012년 빙판길 교통사로로 멤버 정하나가 중상을 입고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이 밖에도 동방신기, 미쓰에이, 포미닛, 달샤벳 등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 2004년 매니저의 졸음운전을 이유로 사망한 원티드 멤버 서재호의 교통사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같이 아이돌 스타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음반시장의 변화와 함께 행사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CD 등이 판매되지 않고 음원으로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을 쥘 수 있는 행사 활동이 급증하면서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무리한 스케줄을 잡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 앨범 발매와 함께 활동시기에는 연예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보다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경우 앨범을 내고 활동이 본격화되면 스케줄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방송3사 가요 프로그램과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 행사가 빼곡하게 잡혀 있다. 하루 3~4개의 스케줄은 기본으로 소화해야 하며 스케줄이 끝난 후 안무 연습도 빼놓을 수 없다. 그야말로 하루 1~2시간만 자는 살인적인 일정이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규모가 영세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매니저 업무를 보는 사람과 운전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지 않고 두 가지 업무를 병행시키는 경우가 많아 매니저 피로도가 커지면서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명 아이돌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연예인의 스케줄을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보통 운전까지 병행한다.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안전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아이돌 스타들의 안전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자 기획사들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잠도 못 자면서 스케줄을 잡고 싶겠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매니저를 교대로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교통사고에 대해 연예계 전반적인 시스템 변혁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김진호 대중문화평론가는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 뛰는 매니저, 스태프에게 정신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구조 개선과 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반갑다, KBS '드라마 스페셜'

30여년 명맥… 배용준·전도연·이영애·원빈 등 유명배우들 거쳐가

14일 방송 '그 여름의 끝' 호평… 21일 '세 여자…'·28일 '다르게 운다'

손현주, 배용준, 전도연, 이영애, 원빈, 조인성, 김윤석, 이선균, 김우빈, 정우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거쳐간 KBS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4'가 휴지기를 끝내고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1984년 단막극의 시초가 된 '드라마게임'부터 30여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드라마 스페셜'이 이번에는 어떤 작품으로 시청자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까.

첫 번째 작품은 배우 조은숙, 이광기가 출연해 14일 방송된 '그 여름의 끝(극본 정수연, 연출 김영진)'이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진우(이광기)의 아내 한수경(조은숙), 진우와 옛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여덟 살 아들 초록이(전진서)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보듬어 주고 슬픔을 극복하는 가족애를 담았다. 주연을 맡은 조은숙은 "KBS 드라마 스페셜과 같은 단막이라면 꼭 하겠다고 마음먹던 차에 제의가 들어왔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며 "몹시 더울 때 촬영했는데,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연기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드라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두 번째 작품은 서예지, 장희진, 박해미 주연의 '세 여자 가출소동(극본 최해철, 연출 이민홍)'이다. 고등학생 수지(서예지), 룸살롱 호스티스 여진(장희진), 밥하는 기계로 취급받는 중년 형자(박해미)는 자유를 누리고자 집을 탈출했지만 자유는커녕 그들을 쫓는 추격자들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는 21일 방송된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단막극 '그 여름의 끝'.

세 번째 작품은 2013년 KBS 극본 공모 당선작 시리즈 4번째 작품으로 최우수작으로 꼽힌 '다르게 운다(극본 이강, 연출 이응복)'다. 이혼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지혜(김소현)의 성장기를 다뤘다. 오는 28일 방송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mj_kim@

Cover Story

해외기업 국내증시 상장

그들이 다시 'GO! KOREA'를 외치는 까닭은



2007년 8월 첫 진출 이후 한때 '상장열풍'
2011년 중국고섬 쇼크로 투자기피 '주춤'
시장 제도개선 힘입어 올해 분위기 반전
영국·스위스 기업 등 10여곳 임성 준비 중

국내 증권시장에 입성하려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증시의 풍부한 유동성, 여기에 지난 2011년 중국 고섬사태 이후 무너졌던 외국 상장사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며 최근 10여개 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 입성을 준비 중이다. 현재 중국, 라오스, 미국, 일본 등 4개국 15개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있다. 코스피 4곳, 코스닥 11곳이다.

국내 증시에 외국 기업이 상장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 해외기업을 찾기란 어려웠다.

지난 2007년 8월 국내 증권시장에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멀티미디어 스피커업체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가 '외국 기업 제1호 상장회사'의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공모주 청약 최종 경쟁률 406.96 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상장 당시 3노드디지탈그룹의 리유쯔슝 회장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IT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이 회사는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국 고섬 사태 이후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로 인해 한국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짐을 싸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노드디지탈그룹이 지금은 국내 증시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 회사가 외국기업 상장의 첫 주자로 나선 이후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09~10년엔 외국 기업 상장 열풍으로 2년간 총 11개의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를 노크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중국 고섬 사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고섬은 국내 증시에 상장했으나 회계부정 논란으로 3개월 만에 거래 정지됐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만 2000억원대다. 중국 고섬 사태 이후 투자자들은 외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외국 상장사들은 상장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해외 업체의 기업공개(IPO) 시장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또다시 해외기업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고섬 사태 이후 외국기업의 상장요건 강화, 상장 주관사의 책임강화, 외국기업 감사인 제한 등의 제도가 개선되며 해외 기업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영국, 필리핀,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 10여개가 국내 증시 입성을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의 해외기업 국내 증시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 같은 분위기 변화에 한몫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외국기업 서울 합동IR' 등을 개최하며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가치 평가를 돕고 있다. 또한 중국, 미국 등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상장 설명회를 열어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몰려오더라도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평산차업 KDR이 시가총액 최소 기준에 미달되며 퇴출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3노드디지탈그룹 이후 코웰이홀딩스, 연합과기, 중국식품포장, 고섬 등 총 7개 외국 기업이 자신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 퇴출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고섬 사태 이후 외국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여러 제도 개선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증시에서 퇴출 위기를 맞은 외국기업이 있어 해외기업 IPO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가 되지만 상장 제도 개선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러시(Rush)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커버스토리 20·21면

유동성 풍부 증자 여력 높아… 英·필리핀 기업 등 노크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 현황 및 전망

	현재(기준일 2014.9.15)	향후 외국기업 상장 전망
국적	중국, 미국, 일본, 라오스	기존 4개국, 영국, 필리핀, 스위스 등
업종	1차 산업 중심	첨단 산업 중심



해외기업 국적·업종 다변화

중국고섬 사태 후 요건·책임 강화
시장 신뢰 회복 상장 추진 잇따라
中 캐릭터 '헝성'·화장품 '하이촨'
상장심사 청구 연내 진출 가능성
필리핀BXT·英콘텐트미디어도…

국내 증권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해외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중국 고섬사태로 야기된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2011년 이후 뜸했다. 외국사는 2009~10년엔 총 11개가 상장했으나 2011~13년에는 단 3곳만이 상장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누그러진 동시에 국내 증시의 풍부한 유동성과 높은 증자 여력 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외국 기업의 상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 국내 증시 노크 활발 = 국내 증시 입성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기업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국 기업 두 곳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만화영화 캐릭터 상품 제조업체 '헝성(恒盛)그룹'이 이달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헝성그룹은 아동용 완구 제조와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공식 마스코트 생산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의 '하이촨(海川)약업' 역시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촨약업은 중국 현지 마트와 약국 등에서 유아·임산부용 화장품 '티 베이비(Tea Baby)'를 판매하고 있다.

헝성그룹과 하이촨약업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와 우리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현재 거래소가 예상하는 시점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연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돌입한 중국 기업도 있다. 제분업체 평위, 인공운모업체 크리스탈홀딩스, 자동차부품업체 로스웰전기, 제약사 퉁런탕, 암 진단 키트업체 트리플엑스, 합성인공운모업체 차이나크리스탈, 제분업체 산동봉우면분 등이 최근 국내 증권사 IB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상장 기업 국적, 업종 다변화 = 한국 증시에 입성하는 해외기업의 국적도 다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중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의 기업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장을 본격 추진 중인 외국기업 10개 가운데 중국 외에도 영국, 호주, 필리핀, 스위스 등의 국적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필리핀의 필리핀BXT와 영국의 콘텐트미디어는 연내 코스닥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각각 이달 말과 연말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외기업의 국적은 중국, 미국, 일본, 라오스 등 4개국이다.

상장 준비 중인 해외기업의 업종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기업의 업종은 어업 등 1차산업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아용품과 패션, 화장품, 자동차부품, 호텔, 모바일 게임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기업들도 국내 증시에 도전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관심 갖는 해외기업, 왜? = 중국 고섬 사태 이후 외국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해도 자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중국 고섬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 중국 기업 고섬이 국내 증시에 상장했으나 회계부정 논란으로 3개월 만에 거래정지되며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이후로 투자자들은 외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로 인해 외국 상장사들은 상장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은 국내 증시 상장을 머뭇거렸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시선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고섬 사태 이후 외국기업의 상장 요건 강화, 상장 주관사의 책임 강화, 외국기업 감사인 제한 등의 제도가 개선되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

또한 국내 증시의 풍부한 유동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장 유지 비용, 높은 증자 여력 등도 해외기업이 국내 증시에 입성하려는 이유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고섬 사태 이후로 외국기업은 상장해도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입성을 꺼렸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달라지며 국내 시장 상황을 주시하던 외국기업들이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부진했던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올해부터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중국서 다시 부는 한국증시 상장 바람

"유지비용 나스닥의 30분의 1" 매력
車부품·제분업·에너지기업 등 관심
거래소 상장설명회 열어 적극 유치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24일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난시(濟南市)에서 한국 증시 상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다시 노크하고 있다. 2011년 중국 기업인 고섬이 불투명한 회계 때문에 상장 폐지된 소위 '고섬 사태' 이후 3년여 만이다.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 증시 진출 타진은 고섬 사태가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중국 당국의 기업공개(IPO) 규제로 중국시장 상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상장해 유지하는 비용이 한국에 비해 비싸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증시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조업체 헝성(恒盛)그룹과 특수 화장품 제조업체 하이촨(海川)약업이 이달 중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우황청심환 제조로 유명한 동인당 그룹이 한국 상장을 위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상장을 목표로 하는 중국 기업들도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로스웰전기, 합성인공운모업체 차이나크리스탈, 제분업체 산동봉우면분이 최근 국내 증권사 IB랑 주관사 계약을 체결해 한국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침체된 증권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해외에서 상장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중국 산둥성 성도인 지난(濟南)에서 열린 거래소 상장설명회에는 산둥성 소재 80여개 기업들이 몰려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노상글로벌(무역·부동산), 산둥중공업(기계건설), 산둥석유가스(에너지) 등 산둥성에 있는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3월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기업 대상으로 상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5월 개최했다.

거래소는 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의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유치 대상 국가별로 현지 IPO 관계 기관들과 끈끈한 관계 형성에 나선 상황이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한국 증시는 거래회전율이 높아 자금 융통이 원활하고 상장 수수료와 상장 후 유지비용이 나스닥의 3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싸다"며 "중국 기업이 상장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데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7년새 22개 중 7곳 퇴출… 녹록지 않은 '코리아 드림'

상장 외국기업 현주소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기업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중국고섬의 회계분식 사태 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코웰이홀딩스, 3노드디지탈, 중국식품포장 등 일부 기업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스스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국내 증시를 떠났다.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엑세스바이오, 씨케이에이치 등 일부 외국기업들은 견고한 실적을 올리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평산차업 시총미달… 뉴프라이드 2년연속 적자 관리종목에
코웰이홀딩스·3노드디지탈·중국식품포장 등 저평가에 짐싸
씨케이에이치·엑세스바이오 등 올들어 45% 이상 올라 선전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현재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중국기업 3노드디지탈이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 기업은 모두 22곳이다. 이 중에서 중국고섬, 연합과기 등 7개 회사가 퇴출됐다.

지난 2012년 4월 일본 기업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SBI모기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상장폐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SBI모기지는 SBI홀딩스의 자회사로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주택금융 전문 업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미국 칼라일그룹 산하 투자펀드 CSM홀딩스는 지난 7월 SBI홀딩스로부터 SBI모기지 지분 1677만7090주를 취득해 지분율 70.67%를 확보한 상태다. 일본 회사인 SBI모기지는 주식예탁증서(KDR) 형태로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CSM홀딩스가 SBI홀딩스가 보유한 KDR를 원주로 전환해 인수하는 구조다.

CSM홀딩스는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 SBI모기지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로부터 상장폐지에 필요한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실시하려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07년 국내 증시에 상장한 평산차업은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퇴출되는 외국기업 1호라는 불명예를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평산차업 KDR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후 61일간 외국 주식 예탁증권 시가총액 요건 50억원 미달이 지속됐다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시총 50억원을 밑도는 날이 30거래일 이상 지속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시 90거래일 이상 시총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증시에서 자동 퇴출된다.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평산차업은 중국 우롱차, 철관음을 재배, 생산,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로 시총은 이날 기준(종가 690원) 33억원으로 상장유지 조건인 5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첫 미국 기업인 뉴프라이드는 2년 연속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뉴프라이드는 7500원에 공모가를 형성한 뒤 상장 직후 주가가 1만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부진에 허덕이며 주가는 3년 만에 3000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 4월 뉴프라이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의 계속사업손실률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뉴프라이드는 자동차 부품과 내장품 전문업체로 지난해 영업이익 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으나 당기순손실이 76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청산 예정인 중국 자회사의 투자 감액손실을 반영해 당기순손실이 늘어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떠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상장을 통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코웰이홀딩스가 국내 증시를 떠난 이후 총 7곳이 국내 증시를 떠났다. 지난해 3노드디지탈과 중국식품포장 등 두 곳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반면 외국기업에 우호적이지 못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지난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기업인 씨케이에이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올 들어 씨케이에이치의 주가는 52% 이상 뛰었다.

씨케이에이치는 4분기(4월1일~6월30일)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씨케이에이치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6억4000만 위안(약 2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2% 성장했다. 씨케이에이치는 한약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식품을 주력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중국 국내외 브랜드 보건식품의 OEM 생산과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OEM 생산 없이 모든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케이에이치가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장한 엑세스바이오는 2002년 설립된 진단시약 전문업체로, 말라리아 진단시장에서 세계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본사는 미국 뉴저지에 있다.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증권예탁증서(KDR) 형태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엑세스바이오의 주가는 올 들어 45% 이상 급증했다.

증권가에서도 엑세스바이오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제품인 G6PD(적혈구 효소 결핍으로 인한 용혈성 빈혈) RDT 매출 가시화, 본사 공장 자동화 및 에티오피아 공장 가동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현대증권 연구원도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이 연평균 35.8%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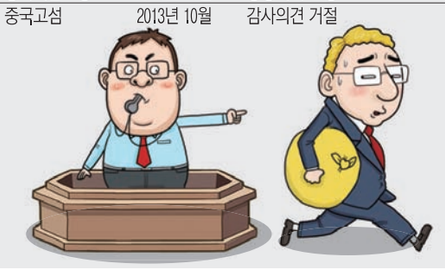
조승예 기자 sysy@

국내 증시 상장 해외기업 현황

회사명	시장구분	상장일	지역	주요제품
평산차업	유가증권	2007년 11월 26일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중국원양자원	유가증권	2009년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지주회사
차이나그레이트	코스닥	2009년 5월 29일	케이맨 제도	스포츠화 및 의류
에스앤씨엔진그룹	코스닥	2009년 12월 4일	홍콩	오토바이, 제초기, 자동차기어
글로벌에스엠	코스닥	2009년 12월 23일	케이맨 제도	자회사 제품: IT기기용 정밀 화스너부품 (스크류, 샤프트, 스프링)
차이나하오란	코스닥	2010년 2월 5일	홍콩	코딩백판지
씨케이에이치	코스닥	2010년 3월 31일	케이맨 제도	건강보조식품
뉴프라이드	코스닥	2010년 4월 21일	미국	인터모달 신생 및 재생타이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코스닥	2010년 4월 23일	홍콩	스포츠화, 스포츠의류
웨이포트	코스닥	2010년 7월 23일	홍콩	제조기류, 톱류, 전동공구류, 원림청소기류
코라오홀딩스	유가증권	2010년 11월 30일	케이맨 제도	지주회사
완리	코스닥	2011년 6월 13일	홍콩	외벽타일
SBI모기지	유가증권	2012년 4월 30일	일본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SBI엑시즈	코스닥	2012년 12월 17일	일본	전자결제대행서비스(PG서비스)
엑세스바이오	코스닥	2013년 5월 30일	미국	말라리아 진단키트(RDT), HIV 진단키트(RDT)

국내 증시 상장됐다가 퇴출된 외국기업

기업	상장폐지일	이유
네프로아이티	2011년 11월	기업계속성 등 상폐 기준 해당
코웰이홀딩스	2011년 11월	상장폐지 신청
연합과기	2012년 9월	감사의견 거절
성융광전투자	2012년 9월	감사의견 거절
3노드디지탈	2013년 6월	상장폐지 신청
중국식품포장	2013년 10월	상장폐지 신청
중국고섬	2013년 10월	감사의견 거절



해외기업 상장 '손톱 밑 가시'는

기업, 영문공시 허용안돼 '걸림돌'
투자자, 회계 투명성 불신도 여전

해외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에는 대내외적 걸림돌이 있다.

해외기업 내부적으로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담보장치가 없다는 점이 손꼽힌다. 제도적으로는 영문 공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 관련 부서 고위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영문 공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영문 공시 허용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공시하려면 한글 공시가 기본이다. 따라서 번역 등 새로 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 추진을 주춤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다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기업인 고섬도 불투명한 회계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그는 "중국 기업의 경우 회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고민이다"며 "이를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섬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중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 노크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승인해 주지 않아서 국내 증시에 상장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를 위한 국내 제도 및 절차·방법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지금보다도 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 관련 부서 관계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해외기업들은 (한국 증시보다) 더 선진화된 시장에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선진 시장에 가기에 좀 만만치 않은 회사는 우리 기준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 등 받는 쪽과 오려고 하는 쪽의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더 많은 해외기업들과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해성산업 '경고음'… 뒤쫓던 개미 '불나방'될라

6거래일 하한가 후 거래량 25배 증가… 각종 루머 판치며 작전세력 개입설도

해성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 없는' 급락세를 보이던 해성산업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5일 해성산업이 전 거래일보다 3.23%(950원) 하락한 2만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이어진 하한가 행진은 꺾였지만 장 초반 반짝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해성산업은 무서운 거래량 폭발을 보였다. 해성산업의 거래량은 481만 2245만주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 거래량의 25배를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성산업의 거래량 급등률은 3077%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1355억원으로 KODEX 레버리지와 삼성전자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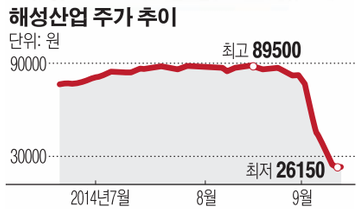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을 통해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해성산업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자 개인투자자들이 '한탕 베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해성산업의 경우 최근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만원대에 불과했던 해성산업의 주가는 지난해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뒤 올해 들어 8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해성산업 주가 추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2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해성산업의 주가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과 지난 4월 삼성테크윈에서 반도체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폭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해성산업을 둘러싼 작전세력 개입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최근의 주가 급락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주가 급등락에 개인투자자들이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증권 카페 게시판에는 해성산업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각종 분석글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시 전문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상황 자체가 위험하다"며 "작전세력에 부화뇌동할 경우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성산업은 1954년 설립된 업체로 시설관리 용역 및 부동산 임대를 주로 영위하고 있다.

한국제지, 계양전기, 한국팩키지 등이 계열사로 단재완 한국제지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해 오던 단 회장은 해성그룹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 그룹 경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4월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사업을 인수한 뒤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그룹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이란 예탁결제기관과의 공동 워크숍에서 한국 자본시장 발전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예탁원, 이란 예탁기관과 공동워크숍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란 중앙예탁기관(CSDI)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양국 자본시장과 관련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체결된 두 기관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란 CSDI는 자본시장 전반과 중앙예탁기관의 업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시스템과 펀드넷 시스템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자본시장 발전 모델로서의 한국자본시장 발전론 소개'((Korea's Capital Market Applicable Development Model) 주제로 특강을 했다.

유 사장은 특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발달과정 및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자본시장 발전 모델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은 CDSI 워크숍과 함께 테헤란거래소, 이란 국부펀드, 이란 증권거래감독기구 등 자본시장 관련 주요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예탁원 측은 전했다.

김미정 기자 mjk@

'퇴직연금코리아 중소형40' 삼성자산운용, 수익률 1위

삼성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코리아 중소형40 펀드'가 1년 수익률 11.69%로 채권혼합형 퇴직연금 중 1위를 달성했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리아중소형40 펀드는 지난 12일 기준 1개월, 3개월, 연초 후 수익률도 각각 2.38%, 4.96%, 9.61%로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퇴직연금 펀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5월 설정된 이 펀드는 퇴직연금 중 새내기 펀드에 속하지만 안정된 운용성과로 대표적인 퇴직연금 펀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소형주 가치투자로 정평이 나 있는 민수아 밸류주식운용본부장이 직접 운용을 맡아 우수한 수익률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민 본부장이 운용하는 대표펀드인 '삼성 중소형 FOCUS 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손실 없이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퇴직연금 펀드는 '삼성 중소형 FOCUS 펀드'와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주로 성장하고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한다.

여정환 리테일영업본부장은 "퇴직연금 확정금리형 상품의 금리가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며 "저금리로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인 투자자들은 성과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4개 증권사 연합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신한·키움·한투·현대 총상금 1억… 29일부터 8주간

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 연합으로 진행되는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2014 해외선물 BIG MATCH' 실전투자 대회가 개최된다.

국내시장 CME(시카고 선물거래소) 해외선물 상품 활성화 및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CME 거래소 해외상품 전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5일부터 11월14일까지며, 이번 대회는 이달 29일부터 11월21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다.

총 1억원 규모의 상금을 내걸고 진행되며, 대회 시상은 4개 증권사 통합시상과 증권사 개별시상으로 나눠 이뤄진다. 누적 수익률, 주간 수익률, 연승왕, 다승왕에게 상이 주어지며, 증권사별 시상은 누적 수익률, 최대 거래량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가린다. 또한 통합시상 누적 수익률 수상자에게는 CME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선물 온라인 실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총 예탁자산이 신청일 원화 기준 500만원 이상인 고객, 2014년 7월1일 이전 국내/해외 파생(FX 포함)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문선영 기자 moon@

11월부터 증권사서 은행계좌 개설 가능

'금융실명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 간 통장 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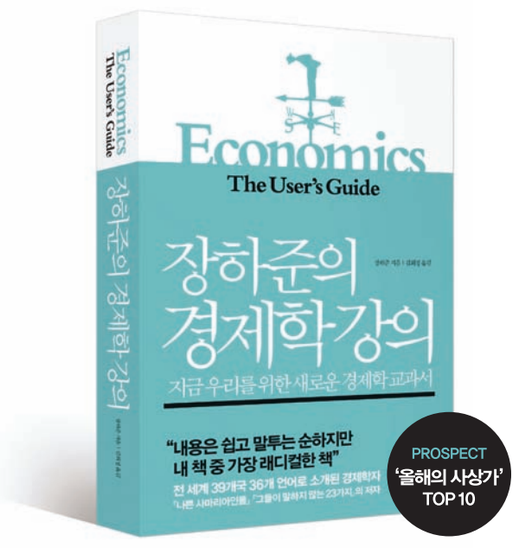
하지만 금융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 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조승예 기자 sysy@

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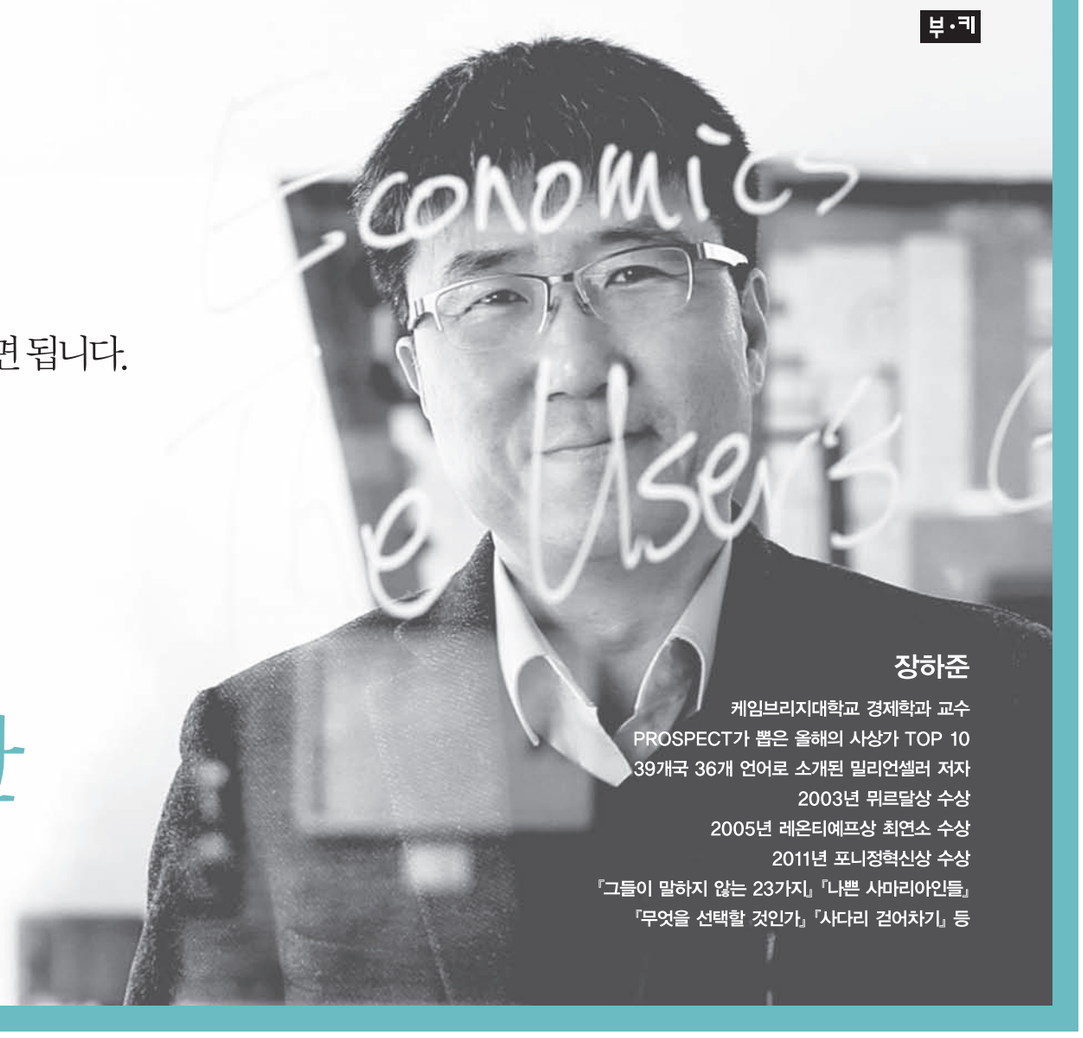


모를 땐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약간의 어려움, 그것만 넘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경제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16,800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ROSPECT가 뽑은 올해의 사상가 TOP 10
39개국 36개 언어로 소개된 밀리언셀러 저자
2003년 뮈르달상 수상
2005년 레온티예프상 최연소 수상
2011년 포니정혁신상 수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쁜 사마리아인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사다리 걷어차기』 등

나를 위한 경제학을 시작할 시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쭉정이' 골라내는 中… CJ제일제당 '신바람'

라이신업체 '푸펑' 수익성 악화로 생산중단… 업계 구조조정에 반사이익 기대

중국 라이신(사료 첨가제) 업체 한 곳이 생산을 중단하며 중국 내 라이신 시장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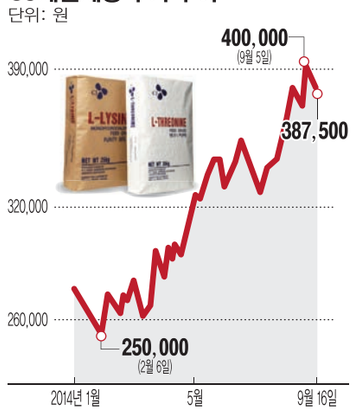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라이신 업체 중 한 곳인 Fufeng(푸펑)이 라이신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생산 가능 업체 수는 기존 16곳에서 15곳으로 감소했다.

Fufeng은 203만톤 규모의 중국 라이신 시장에서 총 7만톤을 생산하는 업체다. Fufeng의 올해 상반기 라이신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약 1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 미만을 차지, Threonine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자 라이신 부문의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Fufeng의 라이신 생산 중단은 중국 라이신 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라이신 가격 하락으로 중국 로컬 라이신 업체들의 외형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8월 중순부터 라이신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며 3분기부터 회복된 라이신 가격이 적용되지만 높은 옥수수 투입 가격은 중국 로컬 업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단기간에 중국 업체들의 라이신 사업 흑자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제일제당 주가 추이
단위: 원



김정욱 BS투자증권 연구원은 "CJ제일제당의 주도로 중국 로컬 업체들의 BEP를 하회하는 라이신 판가 전략이 예상된다"며 "라이신 스팟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재개하지 못한 기업들은 연내 퇴출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라이신 시장의 구조조정에 따라 CJ제일제당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라이신, 핵산 등을 축으로 하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지난 2분기 4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아이오와공장 가동과 수율 향상에 따라 라이신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한 15만톤을 기록했으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판가가 전년대비 20.1% 감소한 톤당 1230달러에 그쳤다.

이선경 대신증권 연구원은 "CJ제일제당은 국내 1위의 종합식품업체로서 사업 전반에 걸친 수익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신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시장 반등의 수혜는 CJ제일제당이 독식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양돈업 회복에 따른 라이신 업황 회복에 따라 하반기 이후 바이오 부문의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라이신 가격 상승 기대로 최근 한달간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9일에는 40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전일 중국 라이신 순도 98.5% 판가는 10.2위안, CJCJ 중국 판가는 10.5위안 유지했다.

이미정 기자 lmj@

우발부채 암초에도 매각 순항

대한전선 예비입찰 5곳 참여

대한전선 예비입찰에 총 5곳이 참여했다.

16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 예비입찰에 FI(재무적 투자자)와 국내외 SI(전략적 투자자)를 포함해 총 5곳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매각주간사인 하나대투증권과 JP모건은 이번주 내 숏 리스트를 선정하고 다음주부터 5주간 실사에 들어간다. 일정대로 마무리되면 10월 말 본입찰을 할 실시할 계획이다. 매각가는 경영권을 포함해 7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FI는 달러계 사모펀드 3~4곳이 검토중이었으나 결국 한앤컴퍼니와 글랜우드가 LOI를 제출했다. SI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참여했다.

대한전선의 사업은 크게 전선, 통신, 부동산, 레저 등으로 나뉘는데 수익성이 좋은 쪽은 전선 부문이다. 때문에 전선부문을 따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유력 인수후보였던 현대중공업, SM그룹, LS전선이 초반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매각주간사와 CA(비밀유지협정)를 체결하고 IM(투자안내서)를 받아간 곳은 20곳에 달했다.

대한전선 주가 추이
단위: 원



일각에서는 우발부채때문에 성공적인 매각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기도 했으나 전선 부문의 가치가 높아 M&A 업계에서는 외부 이슈가 없으면 클로징까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선 사업부 실적이 개선됐고 시장점유율도 나쁘지 않아 우발채무 문제만 잘 조정된다면 SI들이 포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M&A 업계 관계자는 "대한전선은 'Good Co.'(흑자 사업부)와 'Bad Co.(손실 사업부)'를 분리 매각했으면 더 많은 인수의향자들이 예비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우발부채만 채권단에서 잘 조정한다면 성공적으로 매각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선 지난해 말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6719억원 규모로 출자전환한 뒤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황윤주 기자 hyj@

동성홀딩스 자회사 에코어 中에 폐타이어 플랜트 준공

동성홀딩스는 자회사인 동성에코어가 세계 처음으로 연속식 폐타이어 열분해 에너지화 공장을 준공하여 본격적인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성에코어가 성공적으로 준공한 플랜트는 친환경적으로 고형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공장이다. 폐타이어 처리 기준 연간 2만톤 규모이며 지난 1월 중국 성광그룹의 유방성광고분자재료 유한회사와 동성그룹의 동성에코어가 체결한 연간 10만톤 처리 프로젝트 중 첫 준공 분이다.

동성그룹은 이번 설비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TTE(Tire To Energy)가 중국 내 폐타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의 표준이 되어 시장을 넓혀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성에코어는 이번 공장 준공으로 인해 본 사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시장 관계자들에게 폐타이어 에너지화 사업의 시장 잠재력과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사업확대 가능성과 더불어 상업적 의미를 가지는 시범공장에 대한 검증을 사업추진의 핵심 전제조건의 하나로 요구해 오던 북미지역과 호주 등지의 예비적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쇼케이스(showcase)가 제공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솔루에타, 아이폰6 출시 앞두고 100% 무증

〈전자파 차폐소재 제조〉

삼성·애플 신제품으로 호재… 발행주식 1102만주로 늘려

전자파 차폐 소재 업체인 솔루에타가 애플의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100% 무상증자에 나서면서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솔루에타는 보통주 한 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결정, 오는 10월 28일 신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발행되는 신주는 551만3258주이며 액면가는 5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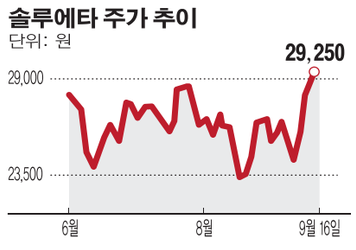
솔루에타가 무상증자에 나선 것은 유통 주식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솔루에타의 현재 발행주식 수는 551만3258주다. 경영권을 가진 조재위 대표이사(170만3400주, 30.90%)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7.65%에 달하고 (2분기 말 기준)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4.99%)와 프리미어파트너스(2.45%), 우리사주조합(7.44%) 등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실제 주식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29만여주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은 9만9400여주로 10만주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발행주식 수는 1102만6516주로 증가하며 약 27억 6000만원의 자본금이 늘어난다.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재원은 이익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솔루에타의 반기보고서 상 자본금은 27억5662만원, 기타불입자본 314억원, 이익잉여금 342억원으로 자본총계는 684억원이다.

솔루에타 관계자는 "지난 12월 상장 이후 발행 주식 수가 너무 적어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 갤럭시노트4, 아이폰 6가 출시돼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무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릭PC 등의 전자기기 회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전도성 소재를 생산하는 솔루에타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삼성전자(40%), 애플(30%)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전자파 차폐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양해져 매년 급격한 외형성장을 거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의 위축으로 지난 2분기 실적이 매출액 222억원, 영업이익 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5%, 68% 감소하는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잠시 주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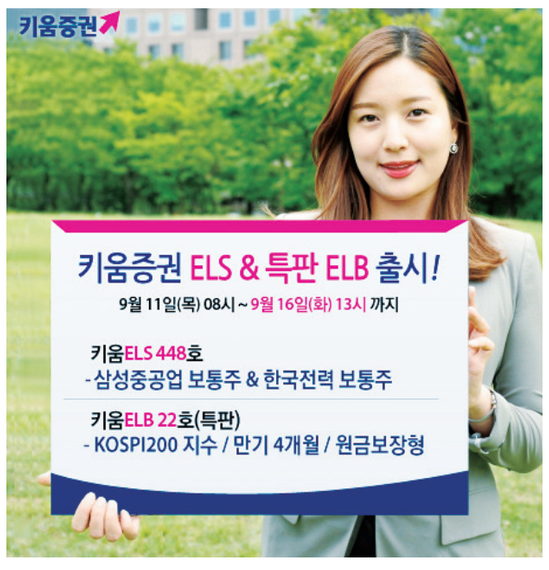
솔루에타 주가 추이
단위: 원



회사 측은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면 무상증자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 부진은 전방산업 스마트폰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 스마트폰 산업이 회복이 되면 얼마든지 주가 수준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희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 중립적인 요인이나 유통주식수 증가, 자본금의 확충 등 단기주가흐름에 긍정적인 요인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솔루에타의 단기적인 이익성장의 모멘텀이 부족하고 최근 해외거래선의 신규스마트폰 모델 출시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특판 ELB·ELS 키움증권 판매

키움증권은 16일 오후 1시까지 연수익률 3.19%를 보장하는 특판 ELB 및 ELS 1종을 판매한다. 특판상품인 '키움증권 ELB 22호'는 기초자산이 KOSPI200지수이며, 만기 4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평가일에 최종 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일 경우 연 3.2%(세전) 수익을 지급하고, 100% 미만일 경우 연3.19%(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모집규모는 20억원이다.

TV 켜는 엘디티

모바일용 OLED 부품 이어 TV시장 진출 매출증대 효과

엘디티가 OLED 부품 사업을 TV까지 확대한다.

16일 엘디티 관계자는 "TV용 UHD급 AMOLED 드라이버 IC를 고객과 공동으로 개발, 시제품을 제공했다"며 "현재 세트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이르면 연내 양산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사업 영역인 모바일용 AMOLED 드라이버 IC 시장 외에 TV용 고해상도 드라이버 IC 시장에 진입하게 돼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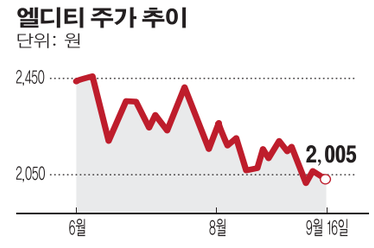
엘디티의 IC칩은 연산장치에서 보내준 영상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바꿔 OLED 패널에 전달해 화면으로 보여준다.

엘디티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제작은 외주 업체에 맡기는 팹리스(Fabless)업체다.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대량의 투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부터 AMOLED 용 구동 IC 개발을 시작, 2009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며 기술력을 확보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업체들이 출시한 스마트워치에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되고 있는 점도 엘디티에는 호재다. 삼성전자 '기어S'에는 2인치 OLED가 탑재됐다. '애플워치'에도 플렉시블 OLED가 탑재된다. LG전자의 'G워치R'에는 지름이 1.3인치인 원형 패널이 채택됐다.

엘디티 주가 추이
단위: 원



엘디티는 매출 비중에서 AMOELD 구동IC가 90% 이상을 차지해 관련 시장이 커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가 OLED 구동 IC의 주요 수요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엘디티는 지난 3월 아트시스템을 흡수 합병하며 재난 방재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추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ASN-300L, ASN-300 등 통신에 특화된 모델을 별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돈사관리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이며 향후 선박 승선자 관리시스템, 방문자 위치 인식 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다날 자회사 '달콤커피' 해외 3개매장 동시오픈

다날의 커피 프랜차이즈 달콤커피(dal.komm COFFEE)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합작법인 델맥스 홀딩스(Dellmax Holdings)와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3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델맥스 홀딩스는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쇼핑몰과 패션몰에 디스플레이 등을 유통하는 Jemco(말레이시아)와 Hub's(싱가포르)의 합작법인으로 현지 프랜차이즈 사업권 확보를 통해 달콤커피 운영과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한다.

얍텐푹 델맥스 홀딩스 대표는 "달콤커피는 한국의 라이징 브랜드로 단순히 커피전문점이 아닌 한류음악과 커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독특한 메뉴와 음악 그리고 라이브공연 등의 차별화 요소를 살려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콤커피는 오는 11월 쿠알라룸프르 다만사라(Damansara)점, 아이오아이(IOI City Mall) 쇼핑몰점, 디펄스(D'Pulze) 쇼핑몰점 등 세곳에 말레이시아 1, 2, 3호점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모텍 '사물인터넷 핵심칩' 들고 中 진출 추진

NFC 라이선스 취득 진행중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까지 사물인터넷에 NFC칩을 도입하면서 NFC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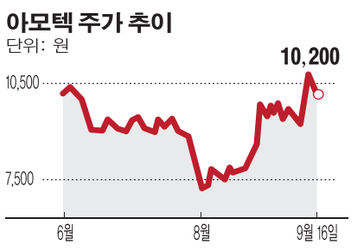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아모텍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샤오미, 화웨이 등에 라이선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일 NFC 업계 한 관계자는 "NFC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삼성전자 1차밴더인 아모텍 등이 샤오미, 화웨이 등에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에 NFC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아모텍과 이그잭스, 에이큐 등이다.

애플이 당초 비콘을 주력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NFC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한데다 삼성전자도 오는 9월말부터 NFC사업을 확대한다. 중국의 국영 카드사인 유니온 페이와의 계약을 통해서 중국 모바일시장에 접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아모텍 주가 추이
단위: 원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루온, 솔라시아, 유비벨록스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 1차 밴더로 NFC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아모텍과 이그잭스 등이다.

중국 최대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차이나 모바일에서도 NFC 장착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삼성전자 1차 밴더들을 비롯한 NFC업체들이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관례상 통신사에 바로 NFC를 공급할 수 없다. 샤오미 등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모텍등 NFC 업체들이 중국 제조사들에 라이선스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아모텍 관계자는 "차이나 모바일 등이 NFC장착 의무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NFC 칩을 쓰는 이유에 대해 "중국 자체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하지만 중국내 로컬 업체들 포함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창조경제는 가능성

창조경제는 일자리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창조경제는 벤처기업 육성

창조경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경제는 우리의 미래

우리는 '창조경제'의 힘을 믿습니다
창조경제가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 삼성 대구창조경제단지 조감도

[삼성 대구창조경제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경제의 허브입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SAMSUNG